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93호

## 특집 기사

정신을 고양시킨 화상회의: 아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삶과 인식에 관한 사색』 신간 발표회

## 특별 보도

중동에 평화의 축복이 계속된다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우리 동물 친구들



SUPREME MASTER  
TELEVISION

12개 위성을 통해 전세계로 방송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 <http://www.SupremeMasterTV.com/kr>





## 영혼의 우주 언어에 파장을 맞추라

침하이 무상사/ 1998. 5. 23.

멕시코 멕시코시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7**


**예** 수는 2천 년 전에 우리를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과 영적인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을 성스럽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신을 기억하도록 해줍니다. 방금 그 스승의 가르침을 좀 읽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큰스승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이자 시의 언어, 천국의 언어입니다. 나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거의 비슷한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모국어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같다는 말입니다. 아주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고상하며 물질적인 귀로 듣기에도 아주 즐겁

지요.

우리는 매일 이런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남들을 비교적 공격적이고 덜 낭만적인 방식으로 대하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시인이나 음악가, 천사, 혹은 아주 고상한 천상의 존재처럼 됩니다. 걸어도 다니지도 않고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닌 영혼으로 숨을 쉬고, 두뇌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며, 사랑의 언어로 말합니다. 혹은 말조차 안 하지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 개의 마네킹처럼 앉아서 손을 맞잡고만 있지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 대한 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느 커플이 사랑에 빠졌는지 알려면 관찰해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커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냥 거기 앉아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며 손을 맞잡거나 잡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을 들여다보며 함께 앉아 있지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두 남녀가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연인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케찰코아틀(Quetzalcoatl) 스승도 침묵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침묵하라. 그러면 빛을 보고 내면의 음악,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스승들이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있지만 내면에 영적인 깨어남이 없다면 그 말은 공허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들리겠지만 그 말은 시적으로 사랑이 스며들지도 않았고 신의 축복의 힘이 실리지도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그런 공허한 말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을 깨우지 못해 우리를 고양시키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사람들에게 모르면 침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 전의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아름답지요! 만일 우리가 매일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제1차 세계 대전이나 제2차 세계 대전, 혹은 다른 어떤 전쟁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좋은 언어는 영혼의 언어, 내면의 목소리, 또는 내면에 있는 천국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시달려 지치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느라 지치고, 정신적인 피로로 지칠 때마다, 앉아서 잠시 관음을 하면 평온함을 느끼면서 내면의 영혼을 속박하고 있던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몸이 편치 않거나 오염된 환경, 또는 압박감이 심한 업무나 직업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도 내면의 음악, 내면의 신의 가르침, 내면의 소리에 파장을 맞추면 즉시 평온하고 편안해집니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아삼어〉

**개**인 웹사이트나 포럼,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다국어 웹사이트(<http://sb.Godsdirectcontact.net>)를 링크하여도 됩니다. 서로 힘을 모으면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구에 있어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우리 다국어 목록에 없어서 견본책자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 뉴스잡지 193호



출판일자: 황금시대 5년(2008년) 8월 16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을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영혼의 우주 언어에 파장을 맞추라
3/ 27/ 73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견본책자/ 신간 소개-『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자비로운 생활의 메시지가 한창 꽃 피우다/ DVD/ CD
5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희소식을 전세계에 전하다
10	다채로운 이벤트 호주/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몽골/ 대한민국/ 중국/ 일본/ 포모사
24	특집 기사 정신을 고양시킨 화상회의: 아네즈 드르노브셰크 박사의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신간 발표회
28	특별 보도 중동에 평화의 축복이 계속되다
30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비밀의 산타 정체가 밝혀지다/ 다이애나가 사랑으로 창조한 동물의 천국/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 - 아제르바이잔의 고귀한 성인
34/ 53	스승님의 농담 무보수 비서/ 다시 짜면 돼
35	빛나는 세계 여성 영웅상 다섯 생명을 구한 여성 영웅
37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아파 세르파: 네팔 어린이들의 영웅/ 인도 - 신성한 소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나라/ 이스라엘-베트남(어울락) 인도주의 사절단
40	주요 연락처
41	빛나는 세계 영웅상 네 가족을 구한 영웅건 케이샤/ 허니의 지고한 사랑
43	황금시대의 과학 기술 황금시대의 교통수단-비행 자동차
45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놀라운 동물 친구들
48	지혜어록 동물 반려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49	시 메리 크리스마스
50	채식 시대 채식,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가는 새로운 풍조/ 유기농 비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
51	관음 웹사이트
5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행복한 동물 마을 이야기
59	사랑의 실천 방글라데시/ 어울락/ 카리브 해 지역/ 중국/ 미국/ 포모사
70	전세계 연락처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희소식을 전세계에 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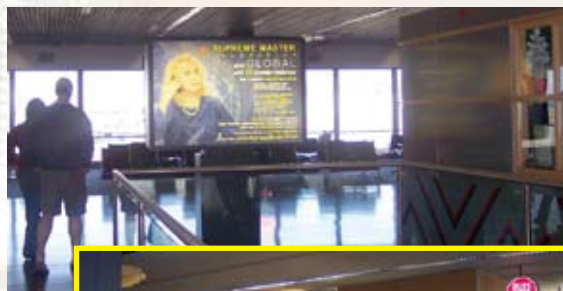
**황** 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부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새로 추가된 10개 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방송된다는 소식을 접한 동수들은 기쁨에 넘쳤다! 전세계 사형사자들은 재빨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멋진 소식을 나누었다.

### 북아메리카-미국

9개 주요 국제공항(세인트루이스 램버트 국제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덴버 국제공항,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새너제이 미네타 국제공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전광판 설치.



세인트루이스 램버트 국제공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덴버 국제공항.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 칭하이무상사 TV 프로그램



워싱턴 D.C.를 운행하는  
도시버스 25대에  
광고 포스터 부착.

뉴욕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맨해튼 지역의 시내버스에 광고.



뉴욕 타임스 광장에 있는 로이터 통신사  
디지털 간판에 게시된 포토 뉴스.

##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 오타와 국제공항.



토론토의 지하철 100량,  
오타와의 버스 200대에 광고 포스터 게시.

## 유럽

###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드릭 쇼팽 국제공항.



### 벨기에

브뤼셀-자벤템 국제공항.



### 체코공화국

프라하 국제공항.



###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







##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

## 노르웨이



오늘로 국제공항에 전시된 전광판.

## 아시아 대한민국



지하철역과 객차에 게시된 광고 포스터.



인터넷 '주제어 검색'을 통한 광고.  
한국의 대형 뉴스 포털사이트 조인스닷컴(joins.com)에 인터넷 배너 광고.



오늘로의 '위대한 대안 박람회'에 참가.  
노르웨이 최대 라디오 방송국인 'NRK 라디오'에서 이 행사를 취재, 인터뷰함.



서울 소재 각 대학과 시내에서 전단 배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언론 매체 오찬 회의 개최. 중앙·지방 매체들이 참가한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공영 TV(TVRI)와 자카르타 TV(Jak TV), 여러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 일본



1년 기한으로 군마 현 도로변에 네온사인 설치.  
신칸센 고속철도 노선의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 주변 역에서 전단 배포.

## 홍콩



KCRC 철도의 주요 4대 노선(동철, 마온산 철로, 서철, 경편 철로)  
34개 기차역에 대형 전광판 설치.



포켓 사이즈의 달력, 카드, 전단,  
서류 폴더, 쇼핑백, 포스터 배포.



주요 신문에 전면 또는 반면 광고.





## 포모사



포모사 주요 신문에 전면·반면 광고 게재.



타이난 중심가에 걸려 있는 눈에 잘 띄는 광고 간판과 자이·핑둥 간 통근버스에 부착된 포스터.



화롄 시내버스에 대형 포스터 부착.



포모사 타오위안 국제공항 입국 통로 벽면에 대형 광고 설치.



## 호주



퀵랜드 선샤인코스트로 가는 관문인 마루치도르 공항에 게시된 포스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가 전세계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다. 그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들 신문·잡지 배포와 함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전세계로 방송된다는 흥미진진한 소식이 수백만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동** 물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아울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마음에서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막고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살생을 멈추고 채식 생활을 선택하라고 일깨워 준다. 모든 동수들에게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신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호주



###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이 호주 비건 엑스포에 전시되다

아델라이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아델라이드]**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4일, 글레넬그(Glenelg) 교외에 있는 아델라이드(Adelaide)에서 최초의 비건 엑스포(Vegan Expo)가 열려 비건(우유와 유제품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 생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관했다. 아델라이드 센터는 스승님의 아름다운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비건 엑스포의 추천 상품으로 기증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호주 남부 채식 협회(Vegetarian Society Of South Australia)의 앤 샌더스(Anne Sanders) 양에게 선물하자 그녀는 펴 듯이 기뻐하며 자기 부스에 계속 전시했다. '동물해방협회(Animal Liberation)'의 알리스테어 코넬(Alistair Cornell) 씨도 책을 받고 그 단체 도서관에 비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기견을 구하는 '자비와 영혼으로(With Compassion and Soul)'라는 단체는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받았다.

엑스포에 참가한 모든 단체들이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받았으며, 대부분 자기네 부스에 계속 전시했다.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으며, 현장에서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파는 판매대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완벽한 안배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통해 이 세상의 아름다운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자비심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 미국



### 마음 훈훈한 신실함의 체험

인디애나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인디애나]**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7일, 미국 인디애나 센터 동수들은 단체명상을 마친 후 지역 도서관으로 향해 계획돼 있던 비디오 강연회를 준비했다.

행사가 막 시작될 찰나에 장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그 덕분에 청중들이 채식이 지닌 자비의 측면과 건강상의 이점에 관해 생생한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화제가 여러 스승들과 그 이름을 딴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은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했다. 한 여성 참석자는 경서와 DVD가 전시된 책상 앞에 스승님의 화신이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기적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비디오 상영이 지연되었지만 참가한 손님들은 남아서 보겠다는 열망이 확고했다. 강연 내내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다. 휴식 시간에 몇몇 사람들은 준비된 채식 요리를 즐기면서 서류 폴더에 있는 정보들을 읽기도 했었다. 우리는 화산한 식품 정보판도 두 개 설치해 채식 고기와 치즈 대용품에 관한 자료, 이런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가게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연회와 방편법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다음 강연은 언제인가요? 곧 열리나요?” “내 딸이 여기 왔어야 했는데.” 인디애나 동수들은 빈틈없는 안배로 이렇게 대중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 싱가포르



###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위한 축제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는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8일,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위한 축제’에 참가했다. 알주니드 선거구(Aljunied GRC)의 베독 저수지(Bedok Reservoir) 풍골(Punggol) 구역이 개최한 이



행사에는 이슬람교·불교·도교·힌두교 등의 여러 단체들이 참가했는데, 다양한 종교 단체들 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주민 복지 정책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이자 알주니드 국회의원인 조지 여용분(George Yeo Yong Boon) 씨의 인솔 하에 진행된 유쾌한 아침 걷기 대회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임 부스와 과학 발명전,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 밖에 현대 무용과 다양한 말레이·인도 전통 공연과 현대 무용·노래도 즐길 수 있었다. 분위기를 살리는 흥겨운 사자춤도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불교 단체에서 차린 많은 부스들이 각양각색의 채식 요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우리 부스에서는 채식 요리를 판매하고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주는 한편 방문객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과 책갈피도 배포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전세계 방송을 홍보하고 소개했다. 이날 약 4천 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동물 친구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동수들은 주최 측에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여섯 권을 행운의 추첨 선물로 제공했다. 축제에 참가해 기금 모금을 위해 협조해 준 데 대해 조지 여용분 외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센터와 다른 참가 단체들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



싱가포르 센터 대표가 조지 여(오른쪽)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립 통신사에 감사를 표시하다

쿠알라룸푸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왕이 임명한 이사회가 운영하는 베르나마(BERNAMA)는 명망 있는 통신사로 국내외 매체에 신뢰할 만한 소식들을 제공한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3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1주년 기념을 전면 뉴스 기사로 실은 이 통신사의 지지에 감동하신 스승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선물과 함께 감사 편지를 전달하도록 쿠알라룸푸르 센터에 지시하셨다.

11월 7일, 세 명의 쿠알라룸푸르 동수들은 베르나마 편집장인 용수형(Yong Soo Heong) 씨를 만나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일에 깊은 인상을 받은 용 편집장은 ‘수프림 마스





베르나마 라디오 인터뷰 24.



베르나마의 편집장인  
용수형 씨(오른쪽).

터 텔레비전'이 새로운 위성으로 전세계에 방송된다는 사실을 소개할 계획을 가졌다. 그는 당사의 일간신문 앞면 두쪽에 특별히 긍정적인 소식을 싣는 것이 말레이시아 수상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용수형 편집장은 재빨리 동수들을 위해 말레이

시아 공용어로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하계쯤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11월 13일에 방송되게 해주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을 최고의 사진 작가에게 찍게 했다. 우리 선물에는 스승님의 다양한 출판물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담긴 DVD, 초콜릿, 큰 과일 바구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자리를 떠난 동수들은 베르나마의 최고 경영자를 만날 기회도 가졌다. 그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베르나마는 이미 소속 매체를 통해 평화와 조화를 촉진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이번 만남의 결과에 아주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

몽골



## 개인과 지역 사회의 영성 고양을 위해 노력하다

코틀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코틀]** 코틀(Khutul)은 약 만 명의 인구를 가진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260km 떨어져 있다. 2003년에 설립된 코틀 센터는 고대 몽골 유목 민족의 '게르(Ger, 둥근 천막)' 식으로 시내 근처 언덕에 세워졌다. 그 땅과 건물은 전적으로 코틀 동수들의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2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여름, 8월부터 10월 까지 코틀 센터에서 개최된 다섯 번의 국내 선행사에는 몽골의 다른 6개 센터 동수들도 참석했다.

10월에 코틀 동수들과 다른 몽골 동수들은 바





얀홍고르(Bayankhongor), 고비알타이(Gobi-Altai) 성의 수도와 츠일(Tseel) 읍을 다니며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방법법을 소개했다. 이들 강연회에는 60명이 참석했고 그중 절반이 방법법을 배웠다.

코톨 센터 사형사자들은 동수들에게 보다 편안한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지역 고등학교 구내 식당을 빌려 일주일에 세 번씩 1,700명의 학생들에게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

## 대한민국



### 검찰청에 자비의 식단을 장려하다

안동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안동]**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5일, 변호사인 한 사형이 안동 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에게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강연이 끝나자 동수들은 콩고기를 포함해 열 가지 정도의 채식 요리로 차려진 훌륭한 뷔페를 제공했다. 콩단백과 인삼, 찹쌀로 만든 한국 전통 요리인 채식 삼계탕은 모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사람들은 콩으로 만든 닭고기와 스테이크, 햄 등을 맛보고 아주 좋아했다. 그들은 채식 음식이 매우 맛있고 종류도 다양하다면서 채식이 이런 줄 알았다면 채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중 두 명은 이제부터 채식을 해보겠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먹여 보려고 한다면 음식은 좀 가져가도 되는지 묻기도 했다.

안동 센터 동수들은 지구를 고양시키는 데 공헌하고 영적인 성장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데 감사히 여겼다. 🌿





## 중국



### 채식 시식회로 환경 보호와 채식 생활 방식을 장려하다

상하이 동수 (원문 중국어)

[상하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8일, 상하이 동수들은 많은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쑤저우(蘇州) 강가의 '상하이 창의산업단지'에서 채식 시식회를 열어 맛있는 채식 요리를 제공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과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자' 전단도 배포했다. 우리가 제공한 채식과 자료 모두 대중들의 환영과 인정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친구들에게 나눠 줄 전단을 받아 갔다. 최근에 채식을 시작했다는 몇몇 여성들은 흥분된 모습으로 채식 요리법에 대해 묻기도 했다. 우리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채식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전단에 상하이의 모든 채식 식당과 채식 식품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알려 주자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생겨서 채식에 대한 신심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이 채식 시식회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동수들은 대중들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울 이 귀중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매우 감사드렸다. 채식을 맛본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찬란하고 만족스런 웃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다. 🌿



## 일본



### 교토 채식 축제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다

오사카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오사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1일, 오사카 센터는 '제5회 연례 교토 채식 축제'에 참가했다. 이



전까지는 도쿄 동수들과 합동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올해는 스승님의 축복 속에 오사카 단독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 있었다. 동수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전시하고 DVD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을 상영하는 한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도 행사장에 배포했다. 많은 관객들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어울락 춘권과 중국식 찐빵을 구입하러 왔다가 우리 전단과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의 깊게 읽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인쇄된 책갈피를 뽑아 운수를 시험해 보기도 했는데, 지혜의 말씀을 읽는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이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오사카 센터는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해 모든 사람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



## 포모사



## 심신 장애인 친구들을 돕다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오위안]**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1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은 타이베이 시 푸싱(福星)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심신 장애인들의 연극 발표회를 도왔다. 많은 손님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극본과 연출을 담당한 사제들의 지도와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3세에서 30세까지의 심신 장애인 친구들이 자신들의 잠재력과 용기를 맘껏 발휘했다. 타이베이 시 ‘심신 장애인 봉사추진협회’ 이사장인 린이화(林奕華) 의원은 동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심신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타오위안 센터의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은 2개월에 걸쳐 차비도 자비로 부담하면서 시간을 내어 우리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협회 비서실장인 차이슈루(蔡淑如) 여사도 이렇게 말했다. “다른 동년배 학우들이 즐겁게 놀 시간에 이 청소년 자원 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우리 친구들과 교류를 가





졌습니다. 그들은 연극 연습을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무대 뒤의 일도 후원해주는 등 실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 선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 후 봉사자 동수들이 '타이베이 심신 장애인 봉사추진협회'로부터 상을 받다.



답례로 봉사자 동수들이 스승님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협회에 기증하다.

## SETTV가 시후 센터를 방문해 특별 보도 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시후]** 포모사의 저명한 방송국인 SETTV는 지난 10월 25일 자사 아나운서가 스승님과 단독 화상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8일 대규모 단체명상이 있던 날 다시 두 명의 기자를 보내 시후 센터를 현장 취재했다. SETTV가 이번에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특별 보도 형식으로 스승님과 관음법문의 진면목에 대해 소개해 우리 협회에 대한 대외적인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취재 당일 기자 두 명은 많은 동수들과 인터뷰를 갖는 한편 우리 동수들의 안내를 받아 시후 센터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약 3천 명의 동수들이 센터에 모여 신실하게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학에 다니는 한 사형은 인터뷰를 통해, 스승님께 입문해 수행한 후로 더욱더 행복하고 나은 사람이 되었기에 자신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스승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자신을 잘 돌보아야 다른 사

람을 돌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정말 많은 이로움을 얻었습니다.” 기자들은 또 수행한 지 아주 오래된 한 동수를 인터뷰해 스승님이 오래전에 구도자들의 요청에 응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교화하고 공개적으로 강연하게 된 상황을 들었다.

이날 SETTV 기자들은 오전에 시후 센터에 도착한 후 바로 촬영과 인터뷰에 들어갔으며 정오에 간



단한 식사를 하고서 바로 또 많은 동수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들의 진지하고 투철한 직업 정신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



## 학생들에게 동물 사랑을 고취하다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신주]**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일, 국립 청화(淸華) 대학교 광음회 소속 동수들이 미니 도서관과 채식 시식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파가 몰리는 구내 식당 앞에 부스를 설치해 무료로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그 외 다른 출판물을 전시했다. 또한 스승님과 동물들의 재미있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 모습이 담긴 DVD도 상영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과 인터넷 주소가 새겨진 볼펜도 나누어 주었다.



원래는 바빠 지나가던 학생들도 우리의 따끈따끈한 채식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와 맛을 보고는 모두들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채식을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청화 대학 광음회에 가입할 요량으로 연락처를 남긴 학생들도 있었다. 개를 아주 좋아한다는 한 외국인은 스승님의 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구입하고 싶어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열렬한 데다 다음날도 계속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서 우리는 행사를 하루 더 연장해 많은 이들의 요청에 부응했다. 🌿



## 지역 음식 축제에서 채식을 보급하다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장화]**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4일, 장화 시청은 '제5회 향토음식토제'를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음





린창민 의원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다.

원귀밍 장화 시장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인터뷰하다.

식 부스가 설치된 것 외에도 다양한 민속 기예, 재즈, 무용, 아동극 등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많은 관람객을 끌었다. 장화 센터 동수들도 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채식을 맛보이고 '수프림 마스



분장을 하고 스승님의 '무자시'를 낭송하는 동수들.

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또 스승님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과 포모사의 킹스톤 온라인 서점에서 각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소식이 인쇄된 자료와 기념품도 참관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원귀밍(溫國銘) 장화 시장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행사에 참여해 준 우리 협회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건강 증진과 지구 온난화 감소를 위해 가능한

한 채식을 하자고 시민들에게 제의했다. 린창민(林滄敏) 의원은 더 나아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채식 음식을 맛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그는 전에는 채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으며 채식이 환경 보호와 경제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더욱 몰랐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다는 로맹 화랑의 예술가 천원빈(陳文彬) 씨는 행사장에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을 읽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책 속에서 동물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관심과 무한한 사랑을 느낀 그는 자신의 느낌을 모든 사람들과 열심히 나누었다.

이번 행사에서 보급한 자료와 채식 시식회, 그리고 각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논평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 대열에 동참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희망한다. 🌱





## 지역 사회와 각 가정에 채식 이념을 불어넣다

지역 사회와 각 가정에 채식 이념을 불어넣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장화 센터는 황금시대 4년(2007년) 12월 4일, 장화 현 텐중(田中) 진 동싱(東興)에서 채식 홍보 행사를 가졌다. 동수들은 주민들에게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채식 요리 시범을 보이는 한편 스승님의 신간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소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나누어 주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뉴스잡지, 견본책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자료 등을 동싱 지역 사회에 기증했는데, 지역 사회 이사장이 주민들을 대표해 받음으로써 이날 행사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

##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보급하다

자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자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5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자이 센터는 신강(新港) 향의 주요 NGO 및 재단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건강 식생활에 관한 세미나와 채식 시식회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영성 서적을 전시하고 새로 출판된 책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채식 시식회용 음식도 여러 가지



준비했다. 주최 측은 발표자를 세 곳 정했는데, 신강 향 ‘지역건강증진센터’의 차이용룽(蔡永隆) 소장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 자이시 ‘동물보호협회’ 리허완(李和川) 이사장 등이

었다. 참석한 청중들은 모두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기 동물들을 돌보는 동물보호협회의 자비로운 행동을 적극 후원해 아낌없이 기부했다.

행사 기간 중, 스승님의 출판물도 긍정적인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새로 출판된 스승님의 동물에 관한 두 가지 책을 무척 좋아해서 부모에게 사 달라고 하기도 했다. 어떤 선생님은 스승님의 책 『삶을 다채롭게( Coloring Our Lives)』를 샀는데, 혼자서 읽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읽어 주기도 했다. 이 씨 성을 가진 한 부인은 몇 구절을 듣더니 책에 쓰인 내용이 바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즉시 동수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전집을 빌렸다. 책을 읽고 난 후 그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입문하기로 결심했다.

동물보호협회 측은 입양한 동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잘 보살피시며 몸소 모범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깊은 존경을 표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우리 국제협회와 함께 동물 보호의 이념을 널리 알릴 기회를 갖고 싶어했다. 🌿



## 사랑이 있으니 행복은 당연한 것

난터우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난터우]** 매년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 난터우 현 정부는 이날을 위해 차오둔(草屯) 수공예센터에서 특별히 ‘사랑이 있

니 행복은 당연한 것’ 축제를 개최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도 초청을 받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축제에서, 많은 심신 장애인들이 놀라운 공연을 펼쳐 불편한 몸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한껏 보여 주었다.

우리 협회는 한방·양방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채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한편 또 대기실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계속 방송해 축제에 참석한 이들의 심신은 물론 영적인 면까지 돌보았다. 🌿

## 기자들의 심도 깊은 보도에 감사하다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난]**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9일, 타이난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 『연합보』와 『중화일보』 두 신문사를 방문해 『연합보』 남부 지역 광고부 차장 리밍셴(李明憲) 씨와 『중화일보』 린쉬예주안(林雪娟) 기자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9월 1일부터 16일까지 타이난 사회교육관에서 열린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품 전시회에 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심도 있는 보도를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신실한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뉴스와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대중매체는 사회를 고양시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평무사한 정신은 찬사받아 마땅합니다.” 리밍셴 씨는 19년 전 스승님께서 공개 흥법을 처음 시작하셨을 무렵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며 스승님의 두려움 없는 정신에 매우 탄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친구를 통해 스승님의 불찬 CD를 구해 종일 틀어 놓았는데, 때로는 틀지 않아도 스승님의 불찬 소리가 푹푹하게 들렸으며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몇 차례나 위험에서 구해 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칭하이 무상사님은 제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십니다!”라고 말했다. 린쉬예주안 양은 스승님의 다방



면에 걸친 재능을 찬탄하면서 “칭하이 무상사님은 이 사회에 맑고 순수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라고 말했다. 🌿



## 2007 포모사 국제음료축제

가오슝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가오슝]**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07 포모사 국제음료축제'가 가오슝 시 런아이(仁愛) 강 광룽(光榮) 부두에서 열려 수천 명의 관람객을 끌었다. 각 센터 동수들의 지원을 받아 러빙푸드(Loving Food Co., Ltd.)도 건강 음료를 소개함으로써 술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이 축제에 참가했다. 우리는 또한 채식 개 사료와 스승님의 신간을 전시하고 DVD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도 상영했다.

행사 기간 중,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와 가족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시음을 하곤 무알콜 흑맥주를 6병 사 갔는데, 다음날 다시 찾아와 두 박스를 더 사 가지고 갔다. 그들은 가족들이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무알콜 흑맥주를 마신 후 좋아졌다고 하면서 특히 그 휠체어에 탄 할머니가 그 점에 대해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행사 이틀째는 즐거운 현상 퀴즈 대회를 열었다! 또한 무알콜 맥주로 요리한 채식 닭찜을 선보였을 때는 맛있는 냄새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요리법을 물었다. ❄️



## 정신을 고양시킨 화상회의:

###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신간 발표회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야**네즈 드르노브세크(Janez Drnovšek) 박사는 슬로베니아 공화국 대통령이자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Thoughts on Life and Consciousness)의 저자이다.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이 책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30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포모사에서 가장 명망 있는 연구 기관인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에서 이 고귀한 책의 신간 발표회를 열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부 대표와 저명한 학자, 각 분야의 귀빈들과 매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드르노브세크 박사의 중국어판 책 출판을 환영하고 토론했다. 수많은 특별 손님 명단 중에는 린홍츠(林鴻池) 국회의원, 양취민(楊蕙民) 외무부 유럽국 부국장, 홍런(宏仁)그룹 회장 왕원양(王文洋) 박사, 저명한 학자인 중앙연구원의 위종센(于宗先) 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연구원 위종센 박사.



양취민 외무부 유럽국 부국장.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포모사 내빈들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고 포모사 사람들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빈들에게 그 책이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에 관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균형과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책이 “사람들에게 내적인 균형을 찾고 의식을 계발하고 삶의 진정한 길을 찾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드르노브세크 박사는 높은 의식을 갖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세계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술은 고도로 발달한 반면 의식은 낮은 데서 발생하는 파멸의 길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높은 의식을 계발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균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으며 세계와 동물 및 자연 만물에 아주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 칭하이 무상사가 생방송 화면에 모습을 나타내 저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셨다. 이날 신간 발표회에 참가한 관중들로서는 저자와 칭하이 무상사를 동시에 볼 수 있어 기쁘기 그지 없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황금시대 4년(2007년) 5월 31일에 슬로베니아 공화국 대통령궁에서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한 바 있다. (뉴스잡지 185호 참조) 영감으로 충만한 이 만남이 차후의 협력 관계를 낳는 씨앗이 되어 이번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중국어판 출간으로 꽃 피우게 된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화상회의에서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에게 최고의 행운을 기원하고 참석한 내빈과 작업팀에 감사를 표하셨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귀중히 여기고 동일한 이상을 나누는 칭하이 무상사와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대통령 사이의 깊은 존경의 마음은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청중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류와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 간의,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의 책’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하셨다. 스승님은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이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칭찬하고 청중들에게 이 책을 읽고 생각해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라”고 권하셨다. 스승님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보다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고, 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고귀한 미래상을 달성”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 “보다 높은 의식의 신성한 수준”에 도달하자고 격려했다. 스승님은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그 정수를 얻도록 권하셨다.

이번 행사는 스승님이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포모사에 초청하시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는 주저없이 가고 싶다고 대답함으로써 모든 이들을 기쁘게 했다. 청중들은 그의 다정함과 관대한 마음에 열광적인 박수갈채와 환호로 답례했다.

내빈들은 깨달음이 있는 질문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해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통찰력 있는 대답으로 응했다. 린홍츠 의원은 공자의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말로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이 행사가 그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이상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우리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활이 단순한 습관의 반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서서히 우리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수년간 공인으로 살아온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정치의 생태에 대해서도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는 청중들에게 말하길,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치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정치의 생태가 개선되고 세상이 더 좋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거나 혹은 정치인들에게 하여금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런그룹 회장인 왕원양 박사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자, 드르노브



린홍츠 의원.



셰크 대통령은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긍정적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간접적으로 그들을 돕게 된다. 반면 소위 부정적인 에너지는 분노, 생활 속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먼저 내면의 균형, 평화를 찾아야 하며 자비로워져야 한다. 긍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이다.



훙런그룹 왕원양 박사.

사람들의 영성과 내적인 평화에 대한 관심 외에도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환경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에, 그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그런 큰 국가들이 지구를 보존하려 노력한다면 이 일은 더 효율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보다 높은 의식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대통령의 영적 철학에서는 의식이 항상 최우선이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과학과 영성 간의 격차에 대해 질문하자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이 점을 더더욱 강조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과학은 언제나 영성, 의식과 함께 작용해야 한다. 그는 오늘날 우리 문명은 과학 기술 면에서는 고도로 발달했지만 영성 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의식이 과학 영역으로 뻗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연말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지만 자신의 책 속에 있는 고상한 이상과 의식 고양에 대해 계속 제창하겠다고 청중들과 스승님께 약속했다. 행사가 끝날 즈음, 칭하이 무상사와 내빈들은 드르노브세크 대통령과 책의 성공을 위해 건배했다. 대통령은 매우 기뻐하며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중국어판 발행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신간 발표회는 미래의 협력 관계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된 모든 사람들은 이 크나큰 에너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마음을 가졌다.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긍정적으로만 되세요! 다른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겁니다!” 🌿



모든 사람들이 드르노브세크 대통령의 신간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하며 건배하다.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구입 웹사이트

[http://www.kingstone.com.tw/book/Book\\_Page.asp?kmcode=2011920500073](http://www.kingstone.com.tw/book/Book_Page.asp?kmcode=2011920500073)

<http://www.books.com.tw/exep/prod/booksfile.php?item=0010387761>

[http://www.eslitebooks.com/Program/Object/BookCN.aspx?PROD\\_ID=2680304175000](http://www.eslitebooks.com/Program/Object/BookCN.aspx?PROD_ID=2680304175000)





이 멋진 행사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보도를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444-449.php>

중국어판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이 킹스톤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된 지 하루 만에 영성 서적 분야 1위, 1주  
만에 전체 서적 1위에 올랐다.




영혼의 고양

## 신간 소개

**슬**로베니아 대통령인 야네즈 드르노브세크(Janez Drnovšek) 박사가 저술한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이 최근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저자는 일상생활부터 시작해 현대 인류의 일반적인 사고와 결함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를 보다 완전한 의식으로 돌아가도록 해줄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매일 진지하고 통렬한 반성을 한다면 누구나 영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사랑이 담긴 무아의 행동으로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 순간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하고, 매 순간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의식하라. 그 순간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그 순간에 우리는 창조물, 모든 생명체, 자연, 우주,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준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주와 여기 이곳에 동시에 살며, 영원과 찰나를 동시에 산다.”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은 인생의 부침을 겪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통한 저자의 자기 성찰이 담긴 48일간의 일기이다. 교회의 아침 종소리처럼 맑은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전세계 사람들의 잠든 의식을 일깨운다. 





## 중동에 평화의 축복이 계속되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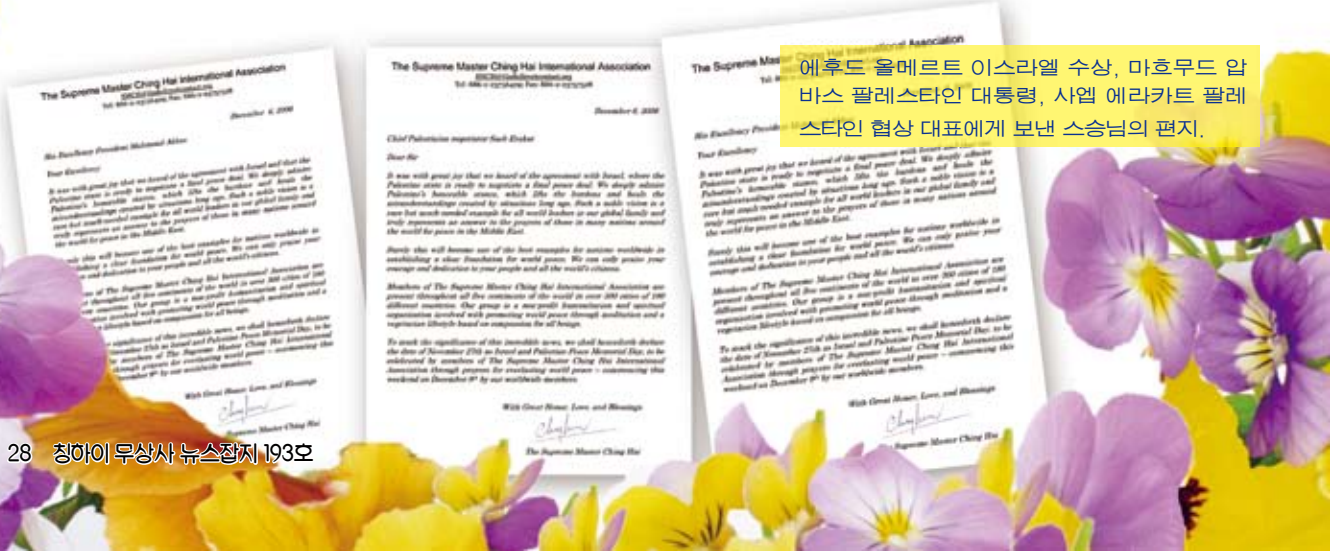
**황**금시대 3년(2006년) 11월 27일, 많은 이들이 고대했던 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기나긴 분쟁이 끝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새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도 팔레스타인에 호의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전 협상 대표인 사옌 에라카트(Saeb Erakat)는 “팔레스타인 국민은 최종적인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 뜻 깊은 사건을 경축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11월 27일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기념일로 선포하시고 전세계 협회 회원들에게 이날을 경축하라고 하셨다. (뉴스잡지 177호 참조)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께서는 에후드 올메르트(Ehud Olmert) 이스라엘 수상,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대통령, 사옌 에라카트 협상 대표에게 친히 편지를 보내 그들이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연 데 대해 축하하셨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최종 평화 협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대단히 기쁩니다.**” 스승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두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칭찬하셨다. “그런 고귀한 선견지명은 보기 드물지만 우리 지구 가족의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본보기이며 동시에 중동 평화를 위한 세상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진실로 응답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분명 세계 평화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 세계 각국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최초 선언이 있은 후, 평화 과정은 양쪽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안정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현재 120개가 넘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단체들이 평화와 단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의 전사(Israeli-Palestinian Combatants for Peace)’ 회원들은 각 학교와 대학교를 찾아가 강연과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모 모임-가족 포럼(Parents Circle-Families Forum)’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이 함께 만든 또 다







른 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모두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어 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종종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와 우정을 나눈다. ‘부모 모임-가족 포럼’의 대변인 알리 아부 아와드(Ali Abn Amad) 씨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랐다. 부모 모임의 회원이기도 한 베들레헴 부시장 조지 사아드(George Sa'adeh) 씨는 “전쟁으로는 모두가 잃지만, 평화로부터는 모두가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포럼 회원들은 또한 ‘화해 제의(Offering Reconciliation)’이라는 국제 순회 예술전도 후원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135명의 저명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예술가들에게는 흰 도자기 그릇 하나만 주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동 평화를 위한 자신들의 소망을 창작한다.

평화 기념일이 선포된 지 정확히 1년 뒤인 11월 27일, 중요한 평화 회담이 미국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기 모인 것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주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나란히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중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을 대표해 나의 개인적인 약속을 거듭 천명합니다. 우리는 여기 아나폴리스 회의 상에서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중동이 자유와 존엄, 번영 속에 성장하는 보다 희망적인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협약에 따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즉시 평화 회담을 개시할 것이며 미국은 2008년 말까지 영구적인 평화 건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회담을 중재할 것입니다.”

이 국제 평화 회담에 앞서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성지의 당연하고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리도록 요청했다. 교황 성하는 참석한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나는 평화를 위해 미국 주교단이 오늘 선포한 ‘기도의 날’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천국의 축복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영구적인 평화와 사랑, 조화를 누리길 기원한다.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평화 기념일 특별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하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439-440.php>



## 겨울철에 온기를 더해 준 자비의 행동: 비밀의 산타 정체가 밝혀지다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아도 결코 헛되지 않다.”

-이솝



비밀의 산타 래리 스튜어트 씨.

**지**난 26년간 매년 12월이 되면 ‘비밀의 산타’로 알려진 한 남자가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낯선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돈을 나눠 주었다.

작년 11월, 미주리 주 캔자스 시에 사는 백만장자 사업가 래리 스튜어트(Larry Stewart) 씨가 자신이 ‘비밀의 산타’라고 밝혔다. 그는 2006년 4월에 암 진단을 받은 후 사람들이 불우한 다른 이들에게 베풀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서로 돕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2007년 1월에 사망하기까지 스튜어트 씨는 생전에 익명으로 약 130만 달러를 나누어 주었다.

‘비밀의 산타’ 역할을 하기 전, 그는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끌어올려 다른 사람을 돕게 해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그는 줄곧 백만장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며 가난의 고통도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하게 태어난 그는 짧은 기간 노숙자 생활을 했었고, 대학을 중퇴했으며, 직장에서도 두 번이나 해고되었다. 심지어 한때는 강도질을 할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언제나 누군가가 돈과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희망을 주었다.

1971년 당시 그는 집 없이 떠돌며 8일 밤을 자기 차에서 잤고 이틀을 꼬박 굶었다. 그때 미시시피의 한 식당 주인이 20달러를 주었는데, 이 자비로운 행동에 너무나 감동받은 그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신께 기도했다. “신이시여, 만약 당신께서 저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두신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후 그는 매년 12월이 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사람들을 찾은 다음 이 은밀한 산타는 현금이나 과자, 혹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물로 주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비밀의 산타’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베풀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는 뉴욕에 가서 100달러짜리 지폐로 2만 5천 달러를 나누어 주었고, 2004년에는 세 번의 허리케인을 겪은 플로리다에 가서 집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 만 연안을 강타하자 ‘비밀의 산타’는 다시 미시시피로 돌아와 헌신했다.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무작위로 베푸는 래리 스튜어트 씨의 선행에 고무된 다른 네 사람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7만 달러의 사재를 나누어 주었다. 비록 스튜어트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비밀의 산타’라는 유산은 그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 있을 것이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으로써 그에 보답할 것이다. 래리 스튜어트 씨는 아낌없이 주는 겸손하고 너그러운 행동을 통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최고의 품성인 진선미의 화신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

참조: <http://www.secretsantausa.com/Home.asp>



## 타이에나가 사랑으로 창조한 동물의 천국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야생 당나귀 구조 보호 구역(The Wild Burro Rescue Sanctuary)’은 캘리포니아 주 올랜차(Olancha) 근처에 있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사막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 근처에는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Death Valley National Park)이 있다. 비록 이 보호 구역은 건조한 기후와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 주변에 푸른 잎이라곤 거의 없는 매우 간단하고 설비도 변변찮은 곳이지만 여기에 피난처를 마련한 2백 마리 야생 당나귀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다.

이 야생 당나귀들은 원래 약 4백 년 전에 짐 나르는 동물로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었다. 현대 운송 수단의 발달로 상업적 가치가 없어짐에 따라 당나귀들은 죽음의 계곡 사막에 버려져 죽거나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야생 당나귀들은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 속도도 매우 빠르다. 당나귀들이 다른 동물과 인간의 수원지



를 뺏고 생태 균형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여긴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야생 당나귀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공원 감시원들은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에서 4백 마리 이상의 야생 당나귀들을 사살했다.

1991년 다이애나 콘토스(Diana Chontos)는 이 상황을 알고 이 사랑스럽고 죄 없는 동물들이 도살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혼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하면서 ‘야생 당나귀 구조대(The Wild Burro Rescue)’를 설립해 이들을 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몇 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1994년 말,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 관리소는 다이애나 콘토스가 죽음의 계곡에서 구조 활동을 계속해 이 야생 당나귀들에게 거주처를 마련해 준다는 조건 하에 야생 당나귀들의 사살을 중지하기로 동의했다.

이제까지 다이애나는 이 국립공원에서 야생 당나귀 5백여 마리를 구조했으며 그 대부분이 ‘야생 당나귀 구조대’ 회원과 일반인에게 입양되었다. 남아 있는 2백 마리는 대개 매우 늙었거나 약해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당나귀이다. 6년 전 약 백 마리의 당나귀들을 데리고 올랜차로 왔을 당시 그녀는 구조 작업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죽음의 계곡과 야생 당나귀들이 살고 있는 몇몇 다른 지역 가까이 있는 목장 하나를 샀다. 이곳에서 그녀는 근처의 공원 관리소가 다시 도살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늘 감시할 수 있었다. 다이애나는 야생 당나귀 외에도 죽음에 처한 늙고 약한 당나귀와 말을 다른 목장이나 개인에게서 입양하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도 입양하는 등 자신의 사랑을 넓혀 나갔다.

‘야생 당나귀 구조 보호 구역’은 항상 적자이며 업무도 과중하다. 그렇지만 동물들을 향한 다이애나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

보호 구역의 주요 관리자는 다이애나, 베키, 크리스 세 사람이다. 다이애나는 모든 당나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 하나하나의 내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중 두 마리는 태어날 때 직접 받아내기까지 했다. 회색 반점이 있는 늙은 당나귀 ‘포피’는 거의 마흔 살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적어도 여든 살은 되었다. 매일 밤이 되면 그들은 포피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따뜻한 외투를 입혀 준다. 늙은 당나귀들은 추위를 겁내기 때문이다. 한 자원 봉사자는 이곳이 여러 동물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고 인간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진정한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는 “야생 당나귀 무리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조용히 주변에 몰려와 내 몸에 기댁니다.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깊이 느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다이애나와 베키가 채식인인 관계로 다른 자원 봉사자들도 그들을 따라 채식을 하고 있다. 다이애나는 콩과 채소 같은 기본적인 재료로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요리사이다.

두려움 없는 정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수백 마리의 야생 당나귀를 구하고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호 구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다이애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고귀한 귀감이다. 🌿

참조:

<http://cache.tianya.cn/publicforum/content/travel/1/92149.shtml>

<http://helpsavethewildburros.org/>

<http://wildburrorescue.org>



##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 - 아제르바이잔의 고귀한 성인

에사사니 사저/ 포모사 (원문 영어)

**중** 앙아시아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한 통신사를 통해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Dr. Akif Mehdizade)를 알게 되었다. 그를 직접 대면해 만난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그와 수개월간 접촉하면서 그의 성인다운 품성을 알게 되었다.

2007년 11월 15일 세상을 떠난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는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공무원이면서 아제르바이잔 번역원장이기도 했다. 그의 모든 동료들과 번역원의 학생들은 그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여겼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국민들도 그의 고귀한 인품을 우러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척 그리워할 것이다.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는 수년 동안 사심 없이 조국에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행된 아제르바이잔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관음 웹사이트 [www.godsdirectcontact.az](http://www.godsdirectcontact.az), ‘채식인 노벨상 수상자와 과학자’, ‘대안적인 삶’ 전단을 번역했다. 그는 일찍이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단체를 돕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록 메디자드 박사와 접촉한 시간은 짧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의 친절과 지지의 마음은 내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나에게 스승님과 우리 단체에 관해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한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 신문 기사를 쓰라고 조언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려운 점



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전국 신문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이 깨달음에 대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학생들에게 칭하이 무상사를 소개하는 교과 과정이나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도 ‘대안적인 삶’ 전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선 번역원 입구에 비치해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전단 2천 장을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메디자드 박사는 언제나 신속하게 나를 도와주었다. 예를 들면 최근 ‘수프림 마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가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한 다양한 자료.

스터 텔레비전'이 새로 추가된 10개 위성을 통해 전세계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는 당시 세계 여행 중에도 이 새로운 소식을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해 주었다. 또한 그의 조수인 마히야 사이도바(Mahiyya Shahidova) 양에게 번역원의 번역가들과 협조해 여러 이웃 나라의 신문사들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시간 내에 그루지야·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아프카니스탄·이란 등 각 나라의 가장 큰 신문 두 곳에 이 소식을 실을 수 있었다. 메디자드 박사의 육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는 지구에서의 시간 동안 고귀한 삶을 살았고 자국 국민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큰 문을 열어 주었다. 아키프 메디자드 박사와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



스승님의 농담

## 무보수 비서

칭하이 무상사/ 2001. 4. 2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9

**한** 여자의 집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벨이 계속 울리자 그녀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지요. “여보세요. 마리입니다.” 상대방이 물었지요. “조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조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긴 저 혼자뿐이고 저는 마리에요.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군요!” 그녀는 전화를 확 끊고 자리 갔어요.

2분 후에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여보세요.” 마리가 말하자 상대방이 말했어요. “조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가 없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녀는 전화를 땡 내려놓고 다시 자리 갔어요.

몇 분 후에 전화가 또 울렸어요. “조, 집에 있나요?” 마리가 말했지요. “이미 말했잖아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전화 잘못 하셨어요. 여기에 조는 없다니깐요!” 마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 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또 올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 옆에 앉아 다른 전화기를 들고 여차하면 경찰에 전화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5분 후에 정말로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그래서 메리는 바로 호통을 쳤지요. “전화 잘못 걸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조는 안 살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어요. “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조예요. 혹시 누가 그 번호로 조를 찾지 않든가요?”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93/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93/jk1.htm>





## 빛나는 세계 여성 영웅상

세계 곳곳에서 인정 넘치는 행동과 신의 섬스러운 사랑의 현시를 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과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세상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더해 준다. 이러한 덕행을 표창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하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비롯한 일련의 상을 제정하셨다. 귀감이 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정부·단체, 자비롭고 용감한 동물 친구들에게 수여되는 이 상은 모든 존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훌륭한 이상에 대한 찬탄과 감사를 나타낸다. 하트 평점은 인류에게 모든 존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도록 상기시키는 신의 사랑을 상징한다.



## 다섯 생명을 구한 여성 영웅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물이 불어난 인도의 파나르 강(Panar River)에서 혼자 힘으로 어린이 세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구한 파르자나(Farzana)의 영웅적인 행적을 알게 되신 스승님은 자비롭게도 미화 2천 달러의 장학금과 함께 그녀에게 '빛나는 세계 여성 영웅상'을 수여하셨다.

파르자나는 인도와 네팔 국경 근처의 외지고 작은 마을인 비셰리가트(Bisheri Ghat)에 살고 있다. 파르자나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다섯 자녀 중 장녀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도 벅차서 교육은 엄두도 못 낸다. 파르자나 학교의 행정 비서인 카르(Kar) 씨에 의하면 그녀는 시골에서의 힘든 생활 탓에 낮을 가리고 잘 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불우한 상황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녀의 아름다운 천성을 없애지는 못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9월 13일 아침, 그녀가 파나르 강 근처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15명의 승객과 오토바이, 자전거를 실은 배가 뒤집어졌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파르자나는 주저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먼저 아이 한 명을 구하고 강으로 들어가 네 명을 더 구했다. 당시 강물 수위가 매우 높고 물살



왼쪽 두 번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파르자나의 아버지, 사촌, 파르자나, 그리고 푸르니아 정부 공무원인 프라스카드 씨와 알빈드 쿠마르 자 씨.





## 빛나는 세계 여성 영웅상



파르자나의 집과 마을.



배가 전복되었던 강바닥. (지금은 강이 말랐으나 우기에는 수심이 10m가 넘는다.)

도 위험할 정도로 거졌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다. 다행히도 전복된 배에 남아 있던 승객들은 스스로 무사히 헤엄쳐 나왔고 신의 자비로움 덕분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파르자나의 용감한 행동에 그 지방 정부는 그녀가 인도의 '비하르 교육 프로젝트(Bihar Education Project)'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숙박·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이 지역 수만 명의 아이들 중 31명만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요즘 파르자나는 힌두어를 배우고 있으며 내년에는 페르시아어, 그 다음엔 영어를 배울 계획이다. 담당 선생님은 그녀가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했다.

푸르니아(Prunia) 지방관 보좌관인 알빈드 쿠마르 자(Arbind Kumar Jar)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11월 28일 파르자나를 만나 '빛나는 세계 여성 영웅상'을 수여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파르자나는 매우 행복해했으며 그녀의 찬란한 미소는 따뜻하고 맑은 그날을 더욱 빛내 주었다. 그녀는 스승님의 사랑과, 다시 학교에 다닐 기회를 준 비하르 정부에 감사하면서 그 돈을 교육비로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파르자나는 이 상에 정말 깜짝 놀랐다면 설령 보상이 없다 해도 사람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하르 정부 관리도 파르자나의 일을 전세계에 방송해 젊은이들이 그녀의 선행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감사를 표했다.

파르자나의 자비와 무아의 정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 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빌며,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숭고함을 추구하여 영적 깨달음이 있는 이 황금시대에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를 기원한다. 🌿



파르자나의 선생님들과 학우들.



스승님이 수여한 장학금 미화 2천 달러를 수령한 파르자나의 영수증.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아파 셰르파: 네팔 어린이들의 영웅

미국 새너제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통신원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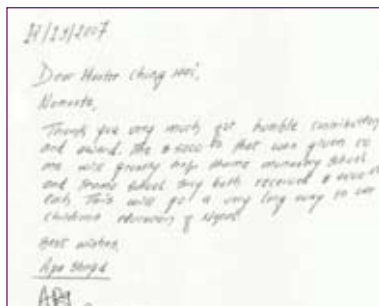
**황** 금시대 4년(2007년) 10월 12일, 새너제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팀원들은 살아 있는 가장 위대한 산악인 중 한 명이며 에베레스트 산(해발 8,848미터, 즉 29,028피트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가장 많이 등반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아파 셰르파(Apa Sherpa)를 만났다. 팀원들은 그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정식으로 수여해 그가 태어난 네팔의 벽지 셰르파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탁월한 박애적인 공로를 표창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네팔 아이들을 도운 그의 고귀한 노력을 인정해 관대하게 미화 5천 달러도 기부했다.

네팔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들은 학교가 거의 없어서 그곳 아이들은 의자, 책상, 책도 없는 임시 학교에 오기 위해 악천후를 뚫고 3시간을 걸어 왔다가 다시 3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간다. 네팔에서는 5천 달러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 셰르파는 이 기부금이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며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개선할 어떤 기회나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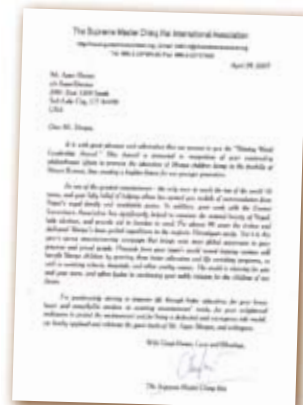
아파 셰르파는 정말 다른 이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다. 그가 살던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의 공헌은 세계 등반 기록을 세우거나 네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네팔의 천연적인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일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셰르파인의 중요성과 그들의 가혹한 생활 여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애쓰고 있다. 아파 셰르파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빌며 그의 학교 사업과 진행 중인 다른 일들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

\*참고: 셰르파인은 장비를 운반하고 등반로가 안전한 한지를 확인하며 위험에 처한 등반가를 구해 준다. 여지껏 셰르파인의 도움 없이 에베레스트를 오른 등반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시상식을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EE457.php>



스승님의 5천 달러 기부금에 대한 아파 셰르파의 영수증과 감사 편지.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인도-신성한 소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나라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성**스럽고 영적인 위대한 나라 인도에는 전세계 소의 4분의 1이 살고 있다. 2억에서 4억 마리로 추산되는 이 경외로운 동물은 힌두교 경전에서 신성하고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사실상 소는 생명의 신성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며, 많은 것을 베풀면서도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 '제2의 어머니'로 간주된다. 인구의 약 82%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키워 내는 이 겸손한 소가 존경과 예우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 인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소의 생명은 인도의 28개 주 가운데 소수 몇 개 주와 연방 직할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으며, 1960년에 제정된 동물 학대 금지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PCA)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소를 죽이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기까지 한다. 헌법 제48조에서는 “정부는 농업과 목축업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계획 또는 조직해야 하며, 특히 품종 보존과 개량을 위한 조치와 소와 송아지 그리고 기타 젖을 제공하고 짐을 끄는 가축의 도살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51조 A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숲·호수·강·야생 생물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모든 살아 있는 생물들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모든 인도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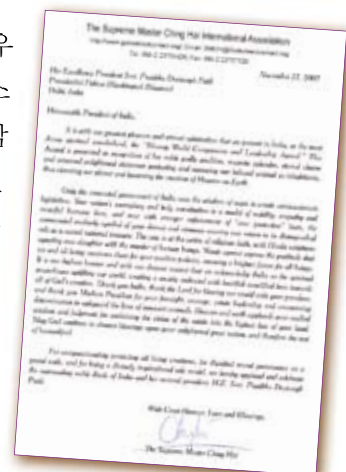
최근 인도의 존경받는 정치가들은 기존 법률을 엄격히 단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함으로써 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은 이 신성한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인도에 높은 존경의 마음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빛나는 세계 자비상'과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하셨다! 신이 인도를 계속 축복하기를 기원하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들을 대우하는 깨달은 조치에서 지혜를 얻길 바란다. 🌿

참조:

<http://www.evana.org/index.php?id=27345&lang=en>

<http://www.mothercow.org/oxen/cow-protection-sense.html>

[http://en.wikipedia.org/wiki/Sacred\\_cow](http://en.wikipedia.org/wiki/Sacred_cow)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 이스라엘·베트남(어울락) 인도주의 사절단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0월 25일, 어울락 하노이에 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스승님을 대신해 어울락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에프라임 벤 매티토(Ephraim Ben Matityau) 씨와 레피 코트(Rafi Kot) 박사, 어울락 ‘가정 방문 진료단(Family Medical Practice)’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해 어려운 어울락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탁월한 인도주의적 선행을 표창했다.

이 ‘이스라엘·베트남(어울락) 인도주의 사절단(Israel-Vietnam[Au Lac] Humanitarian Mission)’을 통해 일단의 의료진들이 어울락 산간 벽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보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어린 관심과 헌신을 보여 주었다.

올해 ‘제2회 연례 이스라엘·베트남 인도주의 사절단’ 활동을 하면서 의료팀은 광빈(Quang Binh) 성 민호아(Minh Hoa) 지방을 여행했다. 이스라엘과 세계 각국에서 온 54명의 의사·간호사·의료 요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 벽지의 불우한 이들에게 의료 혜택과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 5월의 짧은 한 주 동안 ‘인도주의 사절단’은 5천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중 70%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의사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다.

대사관저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린 시상식은 즐거운 분위기가 넘쳐 흘렀다. 참석한 내빈들로는 네티 브룩(Nati Brook) 하노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공사, 하노이 ‘가정 방문 진료단’ 의사인 야론 아츠몬(Yaron Atzmon) 박사, 대사관 직원, ‘이스라엘·베트남(어울락) 인도주의 사절단’ 회원 등이 있었다.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으면서 벤 매티토 대사는 ‘이스라엘·베트남 인도주의 사절단’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훌륭한 공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협력 활동의 중요한 동료인 코트 박사



에프라임 벤 매티토 대사(오른쪽)와 ‘가정 방문 진료단’ 단장인 레피 코트 박사(왼쪽).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를 추천하면서 그와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의 영광을 함께 나눴다. 이에 코트 박사는 그가 어울락에 설립한 병원 단체인 '가정 방문 진료단'의 의료진들도 이 영광을 함께 누리야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벤 매티토 대사와 코트 박사의 깨달은 지도력과 무아의 정신, 겸손함은 진정 찬사를 받을 만하다.

우리 대표들은 스승님께서 보내신 찬사의 편지를 읽은 뒤 벤 매티토 대사와 '가정 방문 진료단' 코트 박사에게 아름다운 상패를 증정했다. 뒤에 두 수상자는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를 표했다. 벤 매티토 대사는 자신과 동료들은 우리 협회의 관심을 받게 된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두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이 인도주의적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스승님께 전하고 싶어했다.

벤 매티토 대사와 코트 박사 그리고 '가정 방문 진료단'에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전달한 일은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었다. 그들은 정말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빛나는 모범이다. 사랑이 넘치는 그들의 선행은 이스라엘에 자부심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어울락과의 탄탄한 우호 관계를 다지게 했다. 신께서 어울락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계속 축복하시고, 지구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가져다주도록 깨우침을 주셔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길 기원한다. 🌿

### 주요 연락처

####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mailto: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mailto:TV@Godsdirectcontact.org)

####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중국어)

####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mailto: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mailto: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mailto: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mailto:chinghaiyd@naver.com)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등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빛나는 세계 영웅상

### 네 가족을 구한 영웅견 케이샤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11** 월 어느 금요일 이른 아침, 플로리다 오크힐(Oak Hill)에서 일곱 살 된 검은 래브라도 혼종견이 인간 반려들을 화염에서 구했다. 우드(Wood) 씨네 집이 불길에 휩싸였으나 그 집의 충견인 케이샤(Keisha)가 불이 처음 시작된 뒷방 문을 크게 두드려 전 가족을 깨우기 시작해 네 가족 모두를 구해 냈다. 그들은 화염을 피할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케이샤는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도착한 오크힐 경찰은 우드 씨가 케이샤를 구하러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말려야만 했다. 우드 씨 가족들은 그 개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스승님은 케이샤의 용감무쌍한 행동을 표창해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케이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

출처: <http://www.wftv.com/news/14616260/detail.html>

## 어니의 지고한 사랑

버지니아 뉴스그룹 / 미국 (원문 영어)

**황** 금시대 4년(2007년) 11월 17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단은 미국 버지니아 주 스테판(Stephens) 시로 가서 일곱 살의 황금빛 리트리버견인 허니(Honey)에게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했다. 2007년 9월 허니의 보호자인 제임스 마틴(James Martin)은 레미콘을 운전하며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정문을 통과할 때 뭔가가 그의 트럭 밑으로 뛰어드는 게 보였다. 그가 즉시 차를 멈추고 내려서 살펴보았더니 차에 치일 뻔한 새끼 고양이와 양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미 고양이와 다른 새끼 고양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새끼 고양이가 너무 어려 혼자서는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 캐시(Kathy)에게 맡겼다.



프레셔스와 허니.



## 빛나는 세계 영웅상



고양이가 도착하자마자 허니는 어린 고양이에게 큰 호기심을 나타냈다. 처음에 그들은 허니가 너무 거칠게 놀거나 어린 고양이를 해칠까 봐 허니를 떼어 놓았지만 허니는 매우 다정하게 굴었다. 그녀는 연약한 고양이를 활아 주곤 돌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 자상한 개는 저절로 젖을 만들어 내 어린 고양이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난 후 마틴 부부는 프레셔스(Precious)라고 이름 지어 준 아기 고양이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프레셔스를 키우도록 허니가 결정한 거예요.” 캐시의 말이다.



허니를 대신해 상을 받은 마틴 부부는 허니에게 상과 선물을 수여하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했다. 그들은 그 모든 선물에 아주 놀라고 감동했다. 허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다정하고 반갑게 대해 주었다. 그녀는 두 벌의 해피도기 영웅 자켓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까지 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상을 전달한 후, 동수들은 제임스·캐시 부부가 스승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를 받았다. “..... 그 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으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 허니에게 주신 침대는 허니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들이 다 좋아합니다. 특히 고양이 프레셔스가요! 그들이 돌아가며 그 포근한 침대에서 잔 것 같습니다. 자켓도 너무 멋집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허니가 더 자주 입게 될 겁니다. 상금을 주신 것도 매우 자상한 배려였으며 잘 사용되었습니다..... 허니와 프레셔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사랑에 저희도 감동했습니다. 허니는 정말이지 ‘특별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저희 곁에 그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URL 주소를 참고하세요. ‘이달의 수상자’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의 시상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gv/>





사진 제공:  
미국 몰러 인터내셔널사.

## 황금시대의 교통수단

### 비행 자동차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어떤 이들은 우리 생전에 비행 자동차가 출현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발명품은 이미 세상에 출현했을 뿐 아니라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최초로 허가를 획득한 ‘호버크라프트(Hovercraft: 고압 공기를 밑으로 분사해 부상하는 탈것)’가 이미 첫선을 보여 상당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겪어 오늘의 회사가 된 몰러 인터내셔널(Moller International)사는 30년 넘게 이 혁신적인 구상에 주력해 왔으며 그 모든 노력과 독창성이 이제 ‘볼란토(Volantor)’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개인 레저용 차량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착륙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볼란토는 육지·수면·사막·눈·늪·잔디 등 어떤 표면 위에서도 10피트(3미터)가량 공중에 뜰 수 있다. 이것이 헬리콥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공중 부양 방법이다. 일반 비행기들이 부양과 추진을 위해 때로 위험할 수도 있는 회전 날개를 채택하는 반면 이 호버크라프트는 대신 덕티드팬(Ducted Fan)을 사용한다. 또한 최첨단 전자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기계식 시스템을 대신하고,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과 결합된 조종 방식을 취한다.

비행사들은 볼란토가 간단하고 조종하기 쉬우며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중요한 관심사인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해, 당사는 ‘볼란토’에 멀티 덕티드팬을 장착해 팬의 소음을 낮추고자 했다. 디자이너들은 날이 갈수록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소음 수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볼란토에 사용되는 로타파워(Rotapower)라는 엔진은 배기가스가 거의 없어 ‘배기가스 배출 극소량 차량’ 기준에 부합된다. 이 차량의 가장 이상적인 연료는 에탄올로서, 이산화질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의 배출 수치를 낮춘다.

레이저용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볼란토’의 최근 디자인은 많은 부분에서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중 엔진 장치로서, 하나의 엔진이 고장 나면 다른 엔진이 안전한 장소에 착륙할 때까지 대신 작동한다. 기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설계된 내장형 팬, 에어백, 충격에 강한 연료 탱크, 컴퓨터화된 자동 안정 장치 등은 이 놀라운 기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색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몰러 인터내셔널은 이 획기적인 비행차의 주요한 특색으로 편안함과 내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친 볼란토.

이 차는 지상에서 3m 정도 높이로만 비행할 수 있으므로 관제 항공 영역을 방해할 위험이 없다. 비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이 차에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은 이 기계가 가진 직관적인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사실 운전자는 2개의 레버만 조종하면 된다. 왼쪽 레버는, 회전시키면 고도를 조정하고 전후로 움직이면 상승·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오른쪽 레버로는 회전하면 비행 방향을 선택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회전하면서 지면 위를 날아오르게 된다.

모든 볼란토는 관로에 내장된 다중 추력(推力) 팬을 사용함으로써 이륙할 때 추력을 제공하고 공중에 정지할 때 동력을 제공한다. 각 팬은 비행·착륙 시 역동적으로 조절돼 안정감과 조종성을 높인다. 전자 센서는 비행사의 요구에 따른 위치와 이동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볼란토는 2008년에 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머지않아 이 비행차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운송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조금 더 연구·발전한다면 이런 운송 수단이 언젠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몫 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이다.

몰러 인터내셔널사는 훨씬 더 선진적인 모델인 ‘M400 스카이크’도 생산했다. 이 특별한 차는 6천m 상공에서 시속 443km, 4천m 상공에선 시속 603km의 속력으로 순항하며 한 번에 1,20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한다. 단 10m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이 비행체는 대중의 눈에 가장 선진적인 모델로 보일 듯하다.



M400 스카이크.

다른 회사인 테라퓨지아사(Terrafugia Inc.)는 ‘트랜지션(Transition)’을 개발 중이다. 이것은 ‘스포츠 경비행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공항 활주로에서도 착륙할 수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날개를 접어 도로를 운전하는 차로 바뀐다. 미래 여행을 위한 이런 독창적인 수단들의 발명은 단시간 내에 달성한 인류의 놀랄 만한 성취를 보여 주는 것이다!

스승님께서는 가끔 다른 행성에서 사용되는 놀라운 여행 방식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많은 환상적인 선진 치료법 중의 하나인 광선 요법으로 치료한 바 있던 영혼들이 지구에 태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계속 황금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흥미진진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비행 자동차는 신의 은총으로 우리 행성에 주어진 깨달음을 반영하는 많은 과학 기술 발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참고:

<http://www.terrafugia.com/>

<http://www.moller.com/>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 우리의 놀라운 동물 친구들

칭하이 무상사/ 2007. 11. 16.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생방송 화상회의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전세계 위성 채널로 방송되게 되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는 생방송 화상회의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와 인터뷰를 갖는 영광을 누렸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님께서도 청중들에게 당신의 신간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대한 질문을 허락해 주셨다. 세계 여러 곳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이 책들의 인기와 함께 이 인터뷰는 신이 귀중한 창조물들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력을 접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다.

### 동물 역시 사랑으로부터 이로움을 얻는다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스승님의 새들은 원래 구조된 새들인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은 후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스승님:** 물론 그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신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더 인간적이랄까 더 사람처럼 되었죠.



## 동물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선물

**질문:** 저는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하나라는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정말 너무 멋집니다. 무엇에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스승님:** 바로 나의 훌륭한 새들이지요. 난 정말 그들에게 허락을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삶에 즐거움을 선사하고 독자들에게 새와 동물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알려 주게 된 것에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날아가는 새들을 볼 때마다 천국을 기억하길 바라고 있지요.

## 동물들과 교감하기

**질문:** 동물들과 소통하시는 과정에 대해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이나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좀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최고의 비결은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가 동물에 대해 사랑을 가지면 그들은 우리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서서히 직감과 느낌이 생길 것이고, 혹은 조용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동물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거나요. 여러분은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밤에 그들과 조용히 앉아 있거나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내면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 조용히 시작해 보세요. 주의를 기울여 들어 보고 직관을 통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포착해 보세요. 간단한 질문들을 하고 그들이 대답을 하는지, 그들의 대답이 명확한지 보세요. 아니면 동물 영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으로조차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아름다움의 세계, 고요한 이해의 세계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듯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동물들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 됩니다. 꼭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느낄 것입니다. 물론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많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 동물 친구들의 배풀기 좋아하는 천성

**질문:** 스승님, 우리 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물 이웃의 목적에 대해 좀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여러분도 보드시피, 어떤 동물들은 큰 힘이 요구되는 곳에 체력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돕고자 존재하고, 어떤 동물들은 체력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있기만 해도 보통 나쁜 영향을 물리쳐서 인간 친구나 그들의 보호자 혹은 다른 동물 친구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며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재난 등을 경고하고자 존재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는 얘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동물 친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 외 어떤 동물들은 묵묵히 자신의 보호자를 축복하며 그들에게 행운과 건강, 재물, 행복, 심지어 영적인 진보까지도 가져다줍니다. 동물들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동물 반려들을 위해 해줄 수 있고 또 앞으로 해줄 것은 끝이 없습니다.

## 동물은 보이지 않는 많은 축복을 가져온다

**질문:** 칭하이 무상사님, 동물의 품성과 능력, 특히 우리가 아직 그다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알려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미 말했듯이, 그들에겐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또 보호하는 힘과 텔레파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들 대부분은 신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냥 행복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히 무조건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생과 여러분의 전생을 압니다. 그들은 현생을 알고 내생도 알며 미래에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그들 중 일부는 만 년 또는 2만 년 전의 과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인류와 다른 존재들을 돕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의식 세계에서 동물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꼭 외형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 인류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질문:** “샬롬”, 칭하이 무상사님.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저는 동물들이 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 동물들과 소통하시니까 그들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샬롬!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우리와 달라 보이지만 그들의 견해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사랑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관찰할 수 있다시피 그들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의존하고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의 사랑, 인간 반려의 사랑,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이요.

예컨대 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든 그리고 얼마만큼 먹이든 그들은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그들을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없이 단 몇 초 뒤에 다시 부르면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왕처럼 숭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건 간에 여러분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며 다시 볼 때마다, 단 몇 분간 떨어져 있다 만나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보이며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동물들은 우리가 매우 무질서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



혜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삶의 부차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를 잠에서 깨워 우리의 '신성한 자아'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 방면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충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도처에 기쁨을 가져다주길 원한다면 신성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 어떤 동물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상기시킨다

**질문:** 새들은 인류와 관련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승님:** 인류에 대한 새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만큼 높은 목표를 가지도록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고향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렇듯이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천국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 동물과 인류 간의 우정의 중요성

**질문:** 스승님, 인류와 동물 간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그것은 지구에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다운 평화예요. 그리고 천국은 인류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 동물 반력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칭하이 무상사/ 2007. 11. 16.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생방송 화상회의

**동**물들이 나를 매우 감동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슬퍼하거나 불유쾌한 상황이나 기분에 처해 있을 때마다 개들과 새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와서는 내 발가락을 핥기도 하고 곁에 앉아 있거나 꺾충꺾충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은 바보인 척 폭 쓰러져 죽은 척한다든가 서로 쫓아다닌다든가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새들도 내 손을 쥐거나 심지어 옷까지 당기면서 뽀뽀를 하고 싶어하고 내게 아름답다는 말 등등을 해줍니다. 그들은 큰 감동을 주고 정감이 풍부하며 여러분의 기분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주 행복해지지요. 🌿



## 메리 크리스마스

(원문 영어)

높은 산봉우리로부터  
작은 실개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네.

유구한 과거로부터  
목마른 영혼들이 모여  
고귀한 성인들이 되어  
위대하신 그분께로 가네.

영겁의 시간 천천히 흘러  
새천년으로 모이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이 황금의 날이 왔도다.

황금시대의 선구자  
사랑의 바다  
성인 중의 성인  
전능하신 신을 맞이하게 되었네.

당신의 축복이 이 크리스마스에 넘쳐흘러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저희 마음과 영혼이  
당신께로 닿게 하소서.

~순수한 사랑의 바다에 잠긴  
싱가포르 제자들



채식 시대

# 채식,

## 젊은 세대에서 퍼져 가는 새로운 풍조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최** 근 몇 년 동안 젊은 세대 사이에 건강과 환경, 동물에 대한 자비의 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채식과 비건(계란, 유제품 등 동물성은 일체 먹지 않는 완전 채식)에 대한 풍조가 널리 퍼져 가고 있다.

독립 조사 회사인 '해리스 인터랙티브(Harris Interactive)'가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채식하는 젊은이의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70% 증가했다. 대중들에게 채식을 교육시키는 한 비영리 기관이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6세부터 17세 사이의 전체 미국 어린이 중 0.5%가 비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모들은 처음에 채식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겠지만 많은 가정의 경우 채식하는 아이가 있으면 온 가족의 식습관이 빨리 개선된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식습관을 더 일찍 바꿀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10년 동안 채식 식품의 보급이 증가한 덕분에 채식 어린이가 있는 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두유, 채식 수프, 채식 햄버거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식 식품을 지역 식료품 가게에서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영양사이며 채식하는 두 명의 십대 아이를 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해가 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식료품 가게만이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학교와 야영장, 대학 그리고 많은 패스트

사진 출처:  
friendsforpeace.org



푸드점과 가족 식당에서 메뉴에 채식을 추가하고 있어요.”

채식하기로 선택한 어린이의 생각이 온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확실히 충분한 근거가 있다. ‘소아·청소년 의학 자료(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네소타의 채식 청소년 4,746명과 채식을 하지 않는 다른 청소년들을 비교한 결과, 채식 청소년들의 음식이 과일·채소 섭취 기준에 훨씬 더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채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호기심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이제 막 채식주의자인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백질은 신체 조직을 형성·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다. 그러나 사실상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평균 단백질 양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운동 선수, 임신부, 혹은 수유 중에 있는 여성 등 일반인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조차 콩류, 두부, 고기 대용품이나 다른 고단백 식품들을 좀더 넉넉하게 섭취하면 일일 권장량을 초과해 신체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계속되어 온 대중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2003년 ‘미국영양학회’가 발표한 한 과학 문헌 평론에서는 잘 계획된 채식·비건 식생활은 모든 연령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베지테리언 타임스(Vegetarian Times)』 잡지의 편집장 엘리자베스 터너(Elizabeth Turner)는 “현명하게 잘 활용한다면 채식 생활은 아주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국제보건학과 영양학 조교수인 머틀 맥컬럭(Myrtle McCulloch)도 이에 동의한다. 그녀가 채식 어린이, 특히 비건 어린이의 부모에게 주는 가장 주된 충고는 비타민 B<sub>12</sub>를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부와 두유 같은 영양을 강화한 콩 식품이 이 영양소의 가장 좋은 섭취원이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집에 채식을 하려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바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충고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비심과 의식의 각성을 통해 채식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미래 세대와 전세계인이 채식주의가 될 그날을 위한 올바른 기초를 닦고 있다. 🌱

[http://www.usatoday.com/news/health/2007-10-14-veggie-kids\\_N.htm](http://www.usatoday.com/news/health/2007-10-14-veggie-kids_N.htm)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6/10/30/AR2006103001013.html>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유기농 비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베지테리언 하우스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21일, ‘히피 구르메 TV 쇼(Hippy Gourmet TV Show)’ 제작진들이 새너제이에 있는 ‘베지테리언 하우스(The Vegetarian House)’를 찾아와, 이 인기 있는 TV 시리즈에 방송할 요리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이 일은 미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 중 하나인 NBC에서도 주목해 그들도 현장에 와 취재해 갔다.



‘히피 구르메’와 NBC가 ‘베지테리언 하우스’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

1994년 칭하이 무상사가 세운 ‘베지테리언 하우스’는 캘리포니아 사우스베이 지구의 유일한 유기농 비건 채식 식당이다. ‘히피 구르메’는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촬영을 하러 왔다. 이 TV 프로그램은 전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요리, 유기농, 지속 가능한 농업, 대체 에너지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집중 조명한다.

NBC는 저녁 뉴스 ‘녹색 환경 보호’ 시간에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베지테리언 하우스’가 일반 비건 채식 식당에서 유기농 비건 채식 식당으로 변모한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베지테리언 하우스’가 퇴비 만들기, 에너지 효율성 증시, 생물분해성 물품 사용을 통해 친환경업체 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텔레비전 뉴스가 보도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 흥분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관해 문의해 왔다. 그 다음 주에는 많은 새로운 손님들이 맛있는 요리를 맛보러 왔는데, 그중에는 척 리드(Chuck Reed) 새너제이 시장도 있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해진 ‘베지테리언 하우스’의 모든 직원들은 모든 손님들과 함께 이를 함께 나누었다.



NBC의 비키 응우옌 양이 ‘히피 구르메’의 제작자인 제임스 에를리히 씨를 인터뷰하다.



‘베지테리언 하우스’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히피 구르메’.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히피 구르메’의 진행자인 브루스 브레넌(Bruce Brennan) 주방장과 제작자인 제임스 에를리히(James Ehrlich)는 ‘베지테리언 하우스’와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에 대해 대단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에를리히는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저희는 세계 각지를 여행했고 이제 제8기째입니다. 매주 9백만이 넘는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지요! .....저는 ‘베지테리언 하우스’를 세계 3대 채식 식당 중의 하나로 꼽겠습니다. 이것은 채식 식당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식당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에를리히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베지테리언 하우스’에서 쓰는 비밀스런 재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스카니 지방과 아마존 열대우림을 다니면서 발견했던 것이기도 하고 전세계 최고의 식당과 최고의 주방장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기도 한데, 그 조미료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고 영성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음식에 깃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음식 맛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베지테리언 하우스’에서 촬영한 30분짜리 ‘히피 구르메’ 프로그램은 2008년 3월 초 미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우리는 뛰어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우리의 유기농 비건 채식 식당을 세상에 소개한 제임스 에를리히와 브루스 브레넌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놀랍고도 유익한 뉴스를 보도해 준 NBC 뉴스와 비키 응우옌(Vicky Nguyen) 양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신의 축복으로 모두가 행복과 조화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

이 인터뷰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방송을 보시려면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video.godsdirectcontact.net/magazine/NEWS448.php>

새너제이 베지테리언 하우스 웹사이트: [www.vegetarianhouse.us](http://www.vegetarianhouse.us)



NBC의 비키 응우옌 기자.



‘히피 구르메’의 제작자인 제임스 에를리히 씨.



스승님의 농담

## 다시 짜면 돼

칭하이 무상사/ 1996. 5. 14. 캄보디아 국제 선철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8



어떤 사람이 나가서 병에 든 음료수를 사서 돌아오던 길에 그만 병을 깨트리는데 바람에 주스를 모두 땅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자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지요. “거기서 뭘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방금 전에 주스 병을 깨트렸는데, 주스가 땅속으로 스며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스며들면 그 흙을 집어 가져가 다시 짜려고요.” 🌿



# 행복한 동물 마을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2007. 2. 22.  
포모사 시후 국제 선오 (원문 영어)



**아**주 옛날 옛적, 스코틀랜드의 아주아주 아름다운 시골에 아주아주 아름다운 양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메에에, 메에에.” 하는 소리말고는 시끄럽게 한다거나 귀찮게 하거나 어느 누구한테든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지요. 그는 자기 할 일만 신경 썼어요. 때가 되면 양털을 만들어 내고 초원의 풀이나 좀 뜯어먹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만족했으며 훌륭하고 평화로운 양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양 주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려.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식사를 위해 저 아름다운 양을 잡아야겠어.”

와! 양은 그 말을 듣고선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어요. “아! 메에에! 불쌍한 내 신세.” 그가 어찌겠어요? 한날 양에 불과한데요. 그는 무기를 잡고 싶어도 잡을 손가락도 없었어요. 그저 멋진 초원, 아름다운 날씨, 깨끗한 흰구름, 푸른 풀, 맑은 물이나 생각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양들의 사전에는 ‘싸움’, ‘전쟁’, ‘중요’, ‘살생’, ‘살인’ 같은 단어가 없으니까요. 그는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달아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주변의 언덕과 초원을 떠나 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가 본 적이 없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살려면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는 계속 달리고 달려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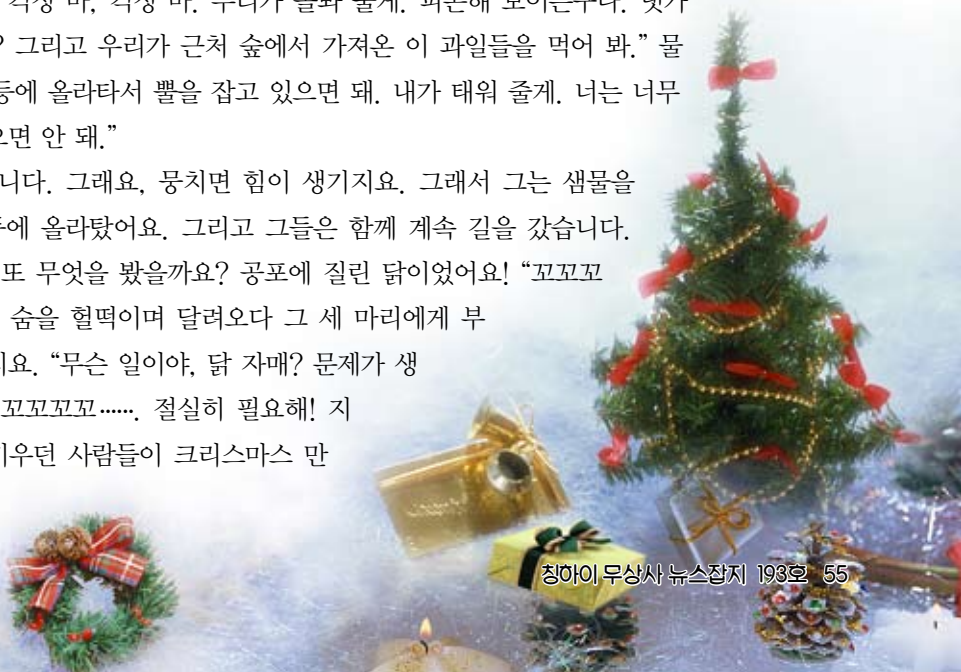
모를 때까지 달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는 다음엔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작은 언덕 뒤에서 두 개의 커다란 뿔이 보였어요. 그것은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물소였어요. 물소는 검고 큰 눈, 큰 뿔, 큰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전날 저녁 먹은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양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양은 약간 무서웠지만 물소가 말했지요. “아! 음메, 널 해치지 않을게. 음메, 널 해치지 않아. 음메, 도망가지 마.” 그래서 양은 도망가지 않고 말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물소 형제?” 물소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 농부가 지금까지 내내 맛있는 풀과 물을 먹여 줬는데, 알고 보니 오늘 나를 죽여서 크리스마스에 먹으려 했던 거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달아나야만 했어! 달리고 달렸더니,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르겠고 지금 너무 피곤해. 여기는 안전했으면 좋겠어. 음메에, 음메.”

그는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었고 오랫동안 숨을 헐떡였어요. 양은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말했습니다. “물소 형제, 나도 같은 처지야. 주인이 크리스마스이브 만찬을 위해 날 죽이려고 해서 달아난 거야.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 머물 곳을 찾아 서로 보살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물소가 말했어요. “그래! 음메, 좋은 생각이야! 자, 가자!” 그들은 짝이 생겨서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게 느껴졌어요. 두 친구는 가능한 한 멀리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어요. 잠도 안 잤고 설 엄두도 못 냈지요. 시냇가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길가에서도 풀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저 샌드위치 같은 거나 얼른 먹고 주스만 조금 마시며 달렸지요.

## 동고동락으로 결속을 다지다

얼마 후에 그들은 작은 거위 한 마리가 “콵콵! 아, 콵콵!”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멈춰 서더니 그들 발밑에 쓰러져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과 물소가 물을 떠 와 거위 얼굴에 뿌려야 했지요. 그가 깨어나자 그들이 물었어요. “거위 형제,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그래, 맞아, 콵! 문제가 생겼어. 아주아주 큰 문제야. 콵콵콵!” (스승님과 대중 웃음) “무슨 일인데?” 거위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내 나를 키웠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이브 만찬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너무 정신이 없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말 좀 해줘. 너희는 덩치가 더 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줘.” 그러자 물소와 양이 말했어요, “걱정 마, 걱정 마. 우리가 돌봐 줄게. 피곤해 보이는데. 냇가로 가서 뭘 좀 마시는 게 어때? 그리고 우리가 근처 숲에서 가져온 이 과일들을 먹어 봐.” 물소가 말했어요. “그런 다음 내 등에 올라타서 뿔을 잡고 있으면 돼. 내가 태워 줄게. 너는 너무 지쳤으니까 또다시 먼 길을 걸으면 안 돼.”

그 거위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뭉치면 힘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는 샘물을 마시고 과일도 좀 먹고 물소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그들이 또 무엇을 봤을까요? 공포에 질린 닭이었어요! “꼬꼬꼬 꼬꼬!” 그는 날개를 퍼덕거리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다 그 세 마리에게 부딪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었지요. “무슨 일이야, 닭 자매? 문제가 생겼니? 도움이 필요해?” “그래! 꼬꼬꼬꼬....., 절실히 필요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나를 키우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날 먹고 싶어하거든. 난





살려고 달아나야 했어. 도와줘! 꼬꼬꼬.....”

그래서 그들 셋은 또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셋 다 같은 문제에 처해 있거든. 우리와 같이 가지 않을래? 너무 피곤하면 양 형제 등에 올라타. 그럼 우리 둘이서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줄게.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 우리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만 있는 곳으로 말이야. 자, 그럼 가자!” 그래서 큰 동물 두 마리가 두 마리의 날개 달린 두 형제자매를 등에 태우고 길을 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동물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이번엔 돼지였어요. “꿀꿀꿀, 도와줘! 도와줘!” 돼지는 숨이 차게 달려와서 그 넷에게 부딪쳤어요. 그러곤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행복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주인이 글썄,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만찬으로 삼으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야. 그들이 대체 예수 그리스도 스승한테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분께 감사하려고 나를 죽여야 하겠어? 그래서 난 살려고 달아나야 했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 인간들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그들과 멀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난 곤경에 빠졌어. 제발 도와줘! 오랫동안 먹지도 못한 데다 너무 지쳤어. 계속 이러다간 죽고 말 거야.”

물소는 돼지를 무척 불쌍히 여기며 말했어요. “걱정 마, 형제. 우리도 너와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단다. 우리가 뭉쳐서 함께 다니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우리가 단결해 맞서면 더 좋을 거야. 힘도 생기고 서로 보호해 줄 수 있어. 그러니 우리랑 같이 가자. 여기 남은 과일하고 물이 있으니 먹어. 네가 기운을 차리고 나면 길을 떠나자.” 그래서 돼지도 그들과 합류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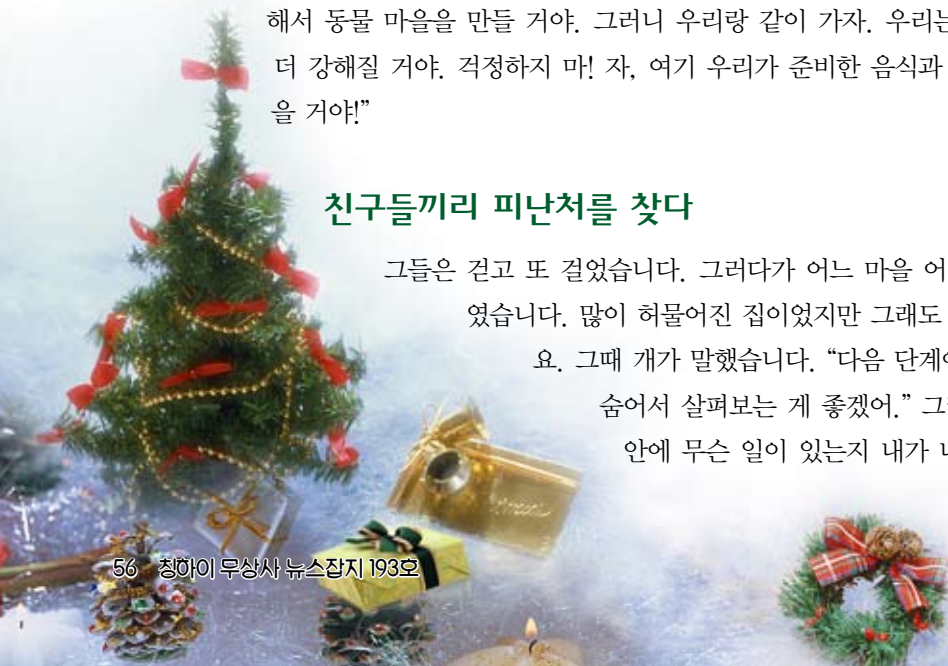
잠시 후, 그들은 또 다른 동물을 만났어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중국 개 한 마리가 멍멍 짖으며 계속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가 물소와 부딪칠 뻔했을 때, 그들이 그를 세우고 물었어요.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니?” 그 개가 말했어요. “아,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야 해!” 다른 동물들이 말했어요.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내가 이제 너무 늙어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겐사겐사 크리스마스 저녁에 고기로 먹을 수 있게 말이야.”

아, 세상에! 저축이라니! 그러자 닭이 말했어요. “꼬꼬꼬! 소용 없어. 그냥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린 이미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중이야. 우리 모두 그곳에 정착해서 동물 마을을 만들 거야. 그러니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는 크고 힘도 세니까 뭉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여기 우리가 준비한 음식과 물이 있으니 좀 먹어. 우린 괜찮을 거야!”

## 친구들끼리 피난처를 찾다

그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많이 허물어진 집이었지만 그래도 집은 집이라서 모두가 멈춰 섰지요. 그때 개가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앞서 주위에 누가 있는지 먼저 숨어서 살펴보는 게 좋겠어.” 그러자 거위가 말했어요. “좋아, 집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살펴볼게. 사람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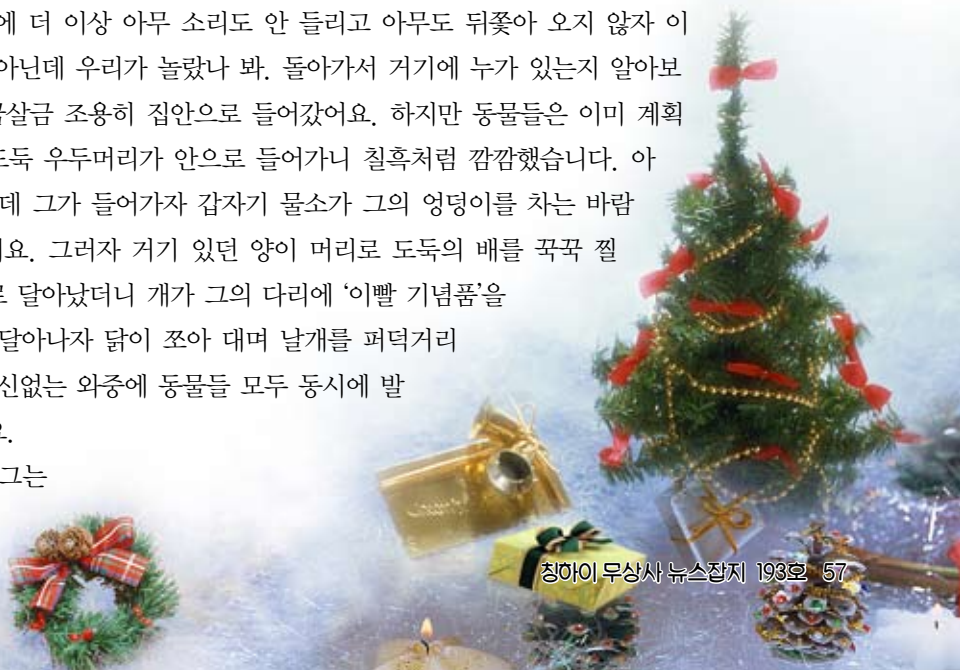
다들 뒤쪽 숲 속으로 숨은 상태에서 거위가 나무 꼭대기로 날아가 동정을 살폈어요. 먼저 먼 곳을 보고 가까운 곳을 둘러보았지만 집이나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다음 앞에 있는 집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약간 무서워 떨렸지만 그는 높은 데에 있었고 나뭇잎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무너진 지붕 틈 사이로 보니까 여섯 명의 도둑이 훔친 것들을 배분하느라 정신없었

어요. 금·은·다이아몬드·루비·에메랄드 등 갖가지 보석과 고급 식기·목걸이·진주 등이 거의 왕의 재산만큼이나 있었습니다. 거위는 내려와 모두에게 말했어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렇게 하고 그런 다음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해서 그들을 놀라게 해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물소는 앞 출입구 근처에, 양은 옆 문에, 개는 다른 쪽 문에 대기하고 있었고 거위는 뒷문에, 닭은 그 문의 다른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 모두 함께 행동을 개시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지요. 각기 다른 소리가 합쳐지니 아주 무시무시하게 들렸어요. 훔쳐 온 돈에 정신이 팔렸던 도둑들은 갑자기 그런 끔찍한 소리가 들리자 모두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들이 숲 속으로 달아나자 동물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갔지요. “이젠 괜찮을 거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그러나 개가 말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거위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게 계획이 있어.” 그러더니 그는 날개를 퍼덕여 등불을 켜줍니다. 주변이 캄캄해지자 그가 말했어요. “좋아. 물소 형제는 앞문을 지키고, 양은 뒷문에서 보초를 서. 개는 오른쪽 문에 있고 닭은 왼쪽 문에, 돼지는 가운데 탁자 아래에 있어.”

도둑들은 숲으로 들어간 후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도 뒤쫓아 오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놀랐나 봐. 돌아가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들은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조용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상태였지요. 도둑 우두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니 칠흑처럼 깜깜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가 들어가자 갑자기 물소가 그의 엉덩이를 차는 바람에 앞문에서 뒷문으로 밀려났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양이 머리로 도둑의 배를 꺾꺾 찢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른쪽으로 달아났더니 개가 그의 다리에 ‘이빨 기념품’을 남겨 주었지요. 다시 왼쪽으로 달아나자 닭이 쪼아 대며 날개를 퍼덕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동물들 모두 동시에 발을 구르고 짹고 소리를 질렀지요.

두목은 정말 겁이 났어요. 그는 나가려고 애썼지만 그때마다





어느 동물에게 부딪치고 또 다른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를 앞문으로 쫓아내자 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는 숲으로 돌아온 뒤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달아나는 게 좋겠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많은 귀신과 악마들이 붙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이 우리 혼을 빼 가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달아났고 동물들은 집에 남아서 서로 보물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후 그들은 각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번창해서 매우 아름다운 동물 마을을 만들었어요. 옆에는 아름다운 시냇가가 있어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많은 물이 있었고, 녹음이 우거진 숲이 그들을 보호해 주고 먹고살기에 충분한 과일과 갖가지 약초와 풀을 제공해 주었지요. 그후로 그들은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대중 박수) 나중에 더 많은 동물들이 합류해 마을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곳은 매우 커서 어쩌다 인간들이 지나가더라도 얼른 달아났습니다. 그곳이 이제는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이 마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지요.

## 동물을 사랑하라

이것이 영리하고 아름답고 순진한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그랬으면 합니다. (대중 박수) 우리 모두 정말 동물들이 우리에게서 달아날 필요 없이 개·고양이·새·오리·닭·거위·돼지 등 가축 친구들처럼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인간에게서 사랑과 우정을 느끼며 다시는 이렇게 달아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소나 거위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우리도 것처럼 무력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인류와 같습니다. 영혼이 있고 이해력이 있으며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지요. 그들은 우리 말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더 영리한 거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개나 돼지, 거위를 키운다면 그걸 알 겁니다. 그들조차 알고 있지요. 🍀



스승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오셨다. 어딘가에 재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스승님은 즉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시고 재해 지역에 구호 팀을 파견해 도우신다. 이 같은 구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도 함께 전하고 있다.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축복, 도움으로 세계적인 재난이 최소화되었음은 분명하다.

스승님께서 세계 각지의 정부와 단체, 구호 대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

“이재민들에게 관심과 구호품을 가져다준 모든 국제적인 원조에 감사를 보냅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시간을 내어 좋지 않은 도로 여건과 여러 악조건을 뚫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해 준 모든 구호 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과 고귀한 희생이 하늘의 충만한 축복으로 보답받길 기원합니다.”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태풍 이재민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다

포모사 구호 팀 (원문 중국어)

2007년 11월 15일, 사이클론 시드르(Sidr)로 방글라데시 남부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으며 농작물이 대다수가 손실되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서 이 재난 소식을 들으신 후 즉시 미화 3만 달러를 기부하시고

동수들에게 재난 구호 팀을 조직하라고 지시하셨다.

11월 20일 오후, 5명으로

구성된 구호 팀이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 도착했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로렌트 오텔리(Laurent Ortelli) 씨 부부의 도움으로 구호 팀은 현지 가톨릭 신부와 접촉할 수 있었으며, 그가 지역 NGO 포럼(NGO Forum)과 연결해 주었다.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구호 팀은 정부나 민간 단체의 도움을 아직 받지 못한 외딴 지역의 이재민들을 우선 원조 대상으로 삼았다. 바르구나(Barguna)·피로즈푸르(Pirojpur)·파투아칼리(Patuakhali)·



구호 팀이 잘라카티 지역에 도착해 비정부 기구인 SJK의 대표 사미마 라니 여사로부터 진심 어린 환영을 받다.



잘라카티(Jhalakathi) 4개 행정 구역과 사다르(Sadar)·파타르가타(Patharghata)·암토리(Amtoli)·지아나가르(Zianagar)·마트바리아(Mathbaria)·나찌르푸르(Nazirpur) 반다리아(Bhandaria)·바우팔(Bauphal)·갈라치파(Galachipa)·날치티(Nalchiti) 등 10개 군의 12개 마을이 이에 포함되었다.

11월 22일 오전, 동수들은 신속하게 쌀·소금·렌즈콩·분유·물·따뜻한 바지·성냥·정수용 약품 같은 긴급 물자들을 구입한 후 NGO 포럼에서 보내준 자원 봉사자 30여 명의 도움을 받아 밤새도록 각 가정당 돌아갈 4,900부대로 개별 포장했다(한 부대당 약 5인분). 그날 밤 구호 물자를 실은 첫 번째 트럭이 원조가 가장 절실한 마을로 출발한 데 이어 구호 대상에 들어 있는 다른 마을로도 트럭들이 속속 출발했다. 치밀한 사전 계획 덕택으로 각 재해 지역에 구호품을 배분하는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4일, 잘라카티 지역에 도착한 구호 팀은 현지 NGO인 SJK(Shakaler Jannya Kallyan)의 집행위원장 사미마 라니(Samima Rani) 여사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라니 여사는 이재민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임무를 마치고 배를 타고 떠날 즈음 구호 팀은 마을 사람들이 머리에 구호 물자를 이고 만족한 표정으로 강가의 숲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때때로 그들은 선상의 동수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곤 했다. 그 순간 우리 가슴은 기쁨과 뿌듯한 마음으로 따뜻해졌다.

11월 25일 아침, 물자 배분하는 일을 마쳤다. 이번 임무가 이렇듯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신이 보내 주신 천사들 덕분이었다. 예를 들면 로렌트 오텔리 부부는 우리의 여행 목적을 알고선 최대한 협조해 주었다. 그들은 먼저 긴급한 데 쓰도록 현지 화폐로 5만 타카를 주었고 그 외에도 차를 빌리고 전단 인쇄하는 일 등을 도와주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심한 배려로 이번 재난 구호 작업의 핵심 인사와 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재난 구호 활동에 종종 참여해 온 가톨릭 신부와 바리살(Barisal)의 NGO 포럼이었다. 그들의 협조 덕분에 구호 활동 기간 동안 각종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물자 발송 과정도 기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구호 팀의 통역을 맡은 로피컬 씨(Mr. Rofiquel)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 대한 스승님의 거듭되는 관심과 사랑에 매우 감동해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피해 지역이 남부 방글라데시에 집중돼 있고 이재민들이 사는 마을 대부분이 범람한 강으로 격리돼 있어서 정부 및 민간 단체의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스승님의 시기적절한 지원은 이재민들에게 더욱 값지게 느껴졌을 것이다. 구호 팀 동수들은 낯선 외국 땅에 있었으면서도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넘치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



구호 팀이 바리살의 NGO 포럼 집행 위원장과 구호 작업에 대해 토의한다.





## 청하이 무상사의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방글라데시화 타카)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쌀·우유·렌즈콩·생수)	1,339,034	B1
생활용품(남자 바지·비누·성냥·소금)	422,900	B2
약품	61,250	B3
포장용품(쌀 부대·끈·고무줄·봉지)	63,875	B4
운송비	136,294	B5
잡비(번역료, 전단)	39,300	B6
합계	2,062,653 (미화 30,067 달러)	



## 어울락

## 중부 어울락 구호 활동

어울락 구호 팀 (원문 어울락어)

2007년 10월부터 11월 초에 걸쳐 중부 어울락에 네 번의 홍수와 한 차례의 태풍이 연달아 지나갔다. 중부 지역의 강물은 1999년의 '세기적인 홍수' 때보다 훨씬 더 불어나 가장 위험한 수위를 넘어섰다.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스승님과 국제협회는 앞서 구호금을 보낸 데 이어(뉴스잡지 190호 참조) 11월 중순에 다시 한 번 미화 약 2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 후에와 인근 지역 구호 활동



계속된 자연재해로 투아티엔(Thua Thien) 성과 후에(Hue) 시가 황폐해졌다. 각급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시기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홍수로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안배 덕분에 후에 시 동수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쌀·채식 국수·담요·약품 같은 구호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가는 길에 홍수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쳤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동수들의 열의에 찬 지원과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호 물자를 이재민들의 손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비도 오지 않아서 구호품이 젖는 일이 없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낀 많은 이재민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퍼졌다.

## 다낭과 꽝남 구호 활동

계속된 호우로 다낭(Da Nang) 인근의 많은 마을이 침수되었다. 지역 당국에서는 사람들을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킨 상태였다. 다낭 지역 동수들은 꽝남(Quang Nam) 성 동수들의 협조를 받아 천 명분의 찰밥과 도시락, 채식 국수를 준비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과 기타 기본 식량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꽝남의 여러 지역에도 구호 물자를 제공했다. 우리가 보낸 물량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받은 사람들은 아주 감동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음식들은 정말 적절한 때 도착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승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빈딘에서의 구호 활동

스승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100개의 선물이 빈딘(Binh Dinh) 성 이재민들에게 배분되었으며 최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반칸(Van Canh) 지역 카인호아(Canh Hoa) 산간 마을 주민들에게도 원조가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적절한 도움에 대해 고마워했다.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시속 120km의 바람을 동반한 7급 태풍으로 빈딘과 카인호아 지역 사이에 산사태가 일





어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전해졌다. 우리는 스승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태풍이 육지에서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반대 방향인 동해로 진로를 바꾸었다 소멸된 것이다. 정말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우리는 중부 어울락 사람들을 구해 주신 신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이런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중부 어울락 홍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베트남화 동)

지출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식품(쌀·채식 라면·설탕·식용유·조미료·소금·물), 담요, 약품	190,864,000	A1
이재민 위로금	121,406,000	A2
운송비(트럭 임대, 차량 연료)	6,730,000	A3
합계	319,000,000 (미화 19,937,50달러)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 카리브 해 지역

# 허리케인 노엘 이재민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달하다

카리브 해 구호 팀 (원문 영어와 스페인어)

2007년 11월 초, 시속 95km의 허리케인 노엘(Noel)이 아이티 서부와 쿠바 동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카리브 해 지역에서 총 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허리케인 노엘로 인한 참상을 아신, 스승님께서는 즉시 동수들에게 긴급 구호 활동을 지시하시고 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쿠바·멕시코에 미화 6만 달러를 기부하셨다. 이에 각국 동수들로 구호 팀이 구성되어 이재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를 나눠 주었다.

### 도미니카 공화국과 쿠바



미국 구호 팀은 11월 5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Santo Domingo)로 파견되었다. 현지 적십자사의 권유로 우리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아주아(Azuza)와 바라호나(Barahona) 지방의 보호소를 다섯 군데 방문해 식품·물·아기 기저귀와 같은 필수품을 전달하고 미화 1천 달러를 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이 돈은 이 나라에 보낸 미화 1만 달러의 성금과 구호 물품 중의 일부였다. 적십자사는 동수들의 구호 활동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다.

이어서 구호 팀은 쿠바의 수도 하바나(Havana)의 상황을 돕기 위해 날아갔다. 다음날 산티아고(Santiago) 지방으로 갔을 때 구호 작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수재민들이 집이 보수·재건될 때까지 현지의 다른 주민들 집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는 스승님께서 쿠바 국민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구호 팀은 이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생활 여건 속에서도 다른 동포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아이티



11월 9일,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시로 미국·캐나다·코스타리카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이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아이티로 갔다. 현지 적십자의 협조를 받아 구호 팀은 총 여섯 군데의 보호소와 국제 선교 교회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우리가 방문한 첫 번째 보호소에는 771명이 있었는데, 그들한테는 더 많은 음식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팀원들은 즉시 그들이 일주일 이상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우유, 물, 기저귀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 보급품을 보자 수재민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말했다. “신이 오셨어요. 신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신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다른 보호소 수재민들은 스승님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가장 어려울 때 첫 번째로 음식과 사랑을 보내 준 분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티 구호 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스승님의 사랑과 인도 하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심지어는 쿠바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기회도 가졌다. 동수들은 전세계 곳곳의 모든 존재들을 물질적·정신적으로 돕는 신의 완벽한 안배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주: 구호 활동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다음 호에는 멕시코 구호 활동과 관련 지출 내역이 실린다.



중국

## 불우한 어린이 돕기

원난 성 동수 (원문 중국어)

늦 가을, 중국 원난 성 동수들은 도시의 집 없는 어린이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동수들은 쌀·식용유·배드민턴 채·공책·운동 바지·티셔츠 등의 물품을 구입해 원난 성 '지아신(家馨) 지역 어린이 보호 센터'와 '아동 보호 센터 기숙사'로 보냈다. 이곳에는 각각 15명과 11명의 어린이가 살고 있다.



스승님의 사랑 어린 관심에 감동한 직원들과 어린이들은 여러 차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 어린이들이 신의 성스러운 사랑과 은총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 🌿



미국

##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다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11월 16일과 22일, LA 동수들은 해마다 해 온 대로 산타아나(Santa Ana)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지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고 식사를 제공했다. 그들은 300여 개의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는데, 각각 티셔츠·모자·장갑·목도리·양말·수건·개인 위생품과 영적인 정보 물이 담겨 있었다.

올해에는 오렌지카운티 사회복지국의 성인 보호부를 통해 각종 질환과 사회적인 소외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했다. 사랑의 선물에는 성인용 기저귀·양말·티셔



오렌지카운티 사회복지국 성인 보호부에서 보내온 감사장.





츠·전자 레인지·의료용품 등이 들어 있었다. 담당 감독관과 집행관은 매우 행복해하며 말했다. “이 선물은 정말 훌륭합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스승님께 전해 주세요.”

이 밖에 몇몇 동수들은 추수감사절에도 비슷한 선물 꾸러미 약 300개를 다시 준비해 여성과 어린이만 수용하고 있는 지역의 한 보호소에 전달했다. 아이들 모두 선물 꾸러미에 들어 있던 재미있고 다채로운 책을 좋아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무척 영광스러웠으며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관음 가족을 대표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데 대해 매우 감사히 여겼다. 우리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우한 사람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스승님의 가르침을 계속 실천할 것이다. 🌿

## 포모사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내 자선·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표 2 중 계: NT\$795,465 (미화 약 24,308달러)

표 1: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전국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NT)

	2007년 7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2007년 10월		
장소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부록
타이베이	3	13,000	5	19,000	4	14,000	5	19,000	1
미아오리	3	9,000	5	15,000	5	15,000	5	15,000	2
장화	1	3,000	1	3,000	1	3,000	1	3,000	3
자이	2	6,000	2	6,000	2	6,000	3	9,000	4
타이중	—	—	—	—	—	—	1	5,000	5
월별 소계	9	31,000	13	43,000	12	38,000	15	51,000	

표2: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NT)

장소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타이베이	2007. 7. 7.	『연합보』와 공동으로 ‘보다 행복한 지구를 위한 채식’ 행사 개최-대중들에게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깨우기 위한 건강 채식 세미나와 별첨 음악회.	119,576	A
장화	2007. 7. 22.	장화 현 문화국 주최 ‘2007년 하계 전국 양서 교환 활동’에 참가.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7. 7. 26.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7. 26.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지원)	0	
이란	2007. 7. 28.	이란 현 ‘창세재단’에 거주하는 노숙자 방문, 영성 세미나 및 채식 시식회 개최.	2,000	B
화롄	2007. 7. 30.	화롄 현과 화롄 시의 각 학교 도서관에 영성 서적을 기증해 주민들에게 정신의 양식 제공.	19,050	C
타이베이	2007. 8. 7.	타이베이 현 사회국의 ‘교외 거리의 친구 의료 구호금’에 기금 찬조.	20,000	D
장화	2007. 8. 26.	부모와 자녀들에게 ‘생명 존중·동물 사랑’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름 가족 캠프 개최.	4,590	E
타이베이	2007. 8. 27.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재소자들을 위한 ‘건강 채식 요리반’ 개설, 재소자들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저하와 사회 안녕 도모.	11,913	F
타이베이	2007. 8. 28.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영어 회화반 개설. (동수 지원)	0	
난타우	2007. 9. 1.	난타우 현 ‘인애의 집’ 노인들과 아이들 방문, 탈수기와 일상용품 기증.	12,966	G
타이난	2007. 9. 16.	타이난 시 사회교육관에서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타이난 주민들에게 영혼의 향연을 베풀.	10,150	H
화롄	2007. 9. 17.	화롄 지방법원 검찰서 보호 관찰 대상자를 방문해 중추절 월병 전달.	5,600	I
타이난	2007. 9. 17.	중추절을 맞아 타이난 민터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7. 9. 19.	중추절을 맞아 지적 장애인 보호소인 ‘타이난 교양원’을 방문해 문화 행사, 채식 시식회, 영성 비디오 상영 등으로 원생, 교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냄.	26,927	J
타이베이	2007. 9. 21.	중추절을 맞아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방문, 월병과 영성 서적 전달.	11,132	K
장화	2007. 9. 22.	중추절을 맞아 장화 현 ‘타이완 아동·가정 부조 재단’, ‘장화 현 사설 런다오 양로원’, ‘장화 현 사설 상하오 양로원’을 방문해 월병과 유자, 영성 서적 전달.	1,317	L
타이베이	2007. 9. 27.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영어 회화 수업.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7. 9.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9. 28.	신디엔 약물치료센터와 공동으로 단기 기능 훈련반인 ‘채식 요리반’ 개최, 재소자들의 전문 기술 습득을 도움.	1,900	M
타이베이	2007. 9. 28.	타이베이 현 우라이 초·중학교에서 건강에 이롭고 친환경적인 채식 식사를 제공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소식 방송, 동물 사랑에 대한 영성 서적 전달.	17,160	N
타이베이	2007. 10. 5.	타이베이 사회복지국과 협조해 거리의 친구들에게 운동 바지·면도기·바디 샴푸·샴푸 등 생활용품 전달.	35,380	O
타이난	2007. 10. 13.	환경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지룽의 황금 해안 청소. (동수 지원)	0	
자이	2007. 10. 19.	중양절을 맞아 자이 시 ‘보린 양로원’ 방문, 채식 케이크와 죽을 대접하고 오락 프로그램 진행.	0	
지룽	2007. 10. 20.	환경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지룽 시의 바더우즈 해안 청소.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7. 10. 23.	동물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중화민국 동물복지·환경보호 촉진회’에 기금 찬조.	325,700	P
타이베이	2007. 10. 25.	신디엔 약물치료센터 방문, 영성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 영어 회화 수업. (동수 지원)	0	
장화	2007. 10. 31.	장화 현과 장화 시의 각 학교와 장화 시 부녀회, 귀성 라디오 방송국 등 16곳에 영성 서적을 기증해 주민들에게 정신의 양식 제공.	7,104	Q
타이베이	2007. 10. 31.	신디엔 약물치료센터와 공동으로 단기 기능 훈련반인 ‘채식 요리반’ 개최, 재소자들의 기술 습득을 도움.	0	
총계			632,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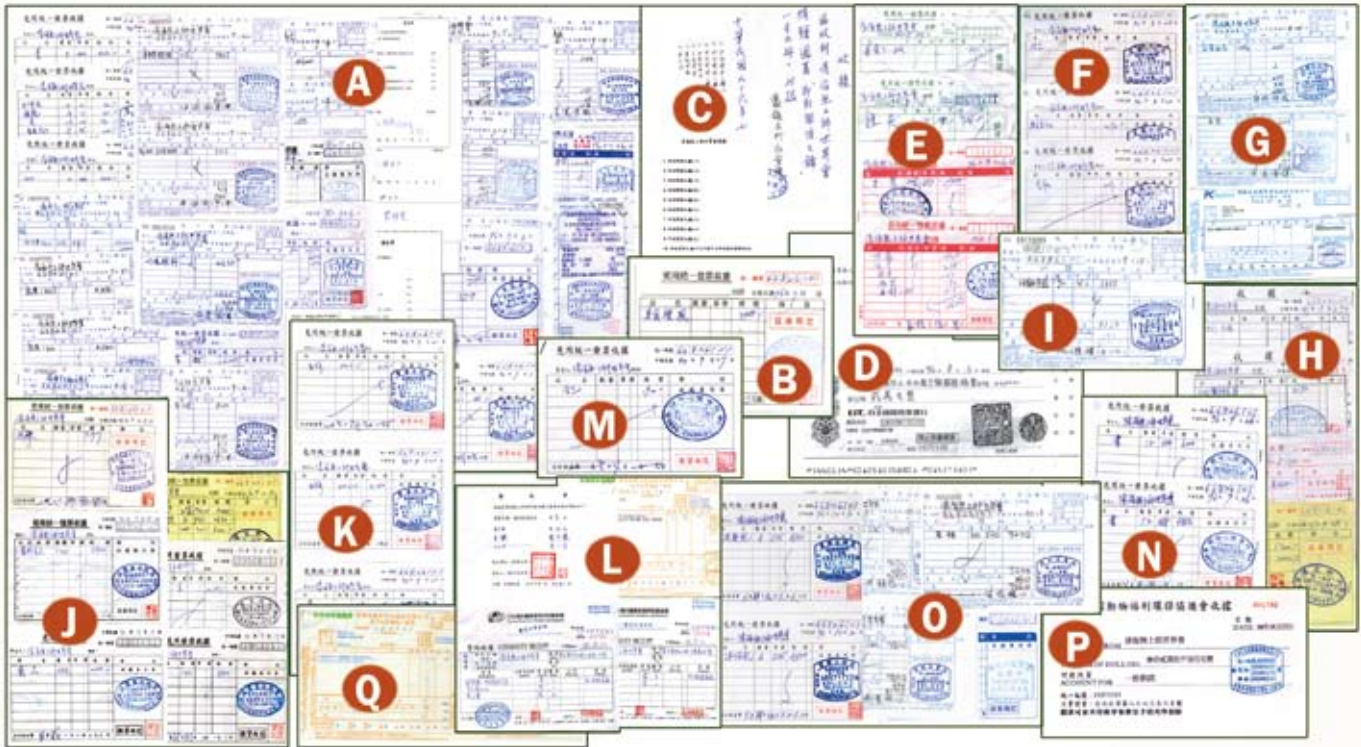


표 2



표 1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토노보/ Mr. Hounhoui Mahougbe Didier/ 229-90-93-29-99/ smportonoovo@yahoo.fr  
★ 부르키나파소: Ouagadougou/ Mr.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Hung Lui-Liang/ 243-813611939/ blessedcongo@yahoo.fr  
킨샤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케냐: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나이지리아:  
예노코아/ Mr.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yahoo.fr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togo@gmail.com  
로메/ Mr. GBENYON Kuaku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브라질: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l@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냐/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l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i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c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35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c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파나마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iane1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 tuanins@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l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yahoo.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ai@gmail.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도/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라노아: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iepoa@sbcglobal.net  
 § 캔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매릴랜드:  
 실버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hotmail.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크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델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델러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델러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델러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ahoo.com  
 버지니아버치/ Le Thanh Liem/ 1-757-461-5531/ qyt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l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말랑/ Mr. Judy R. Wartonon/ 62-341-491-188/ yudi\_wartonon@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7-95119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samwoncokr@daum.net  
 서울/ 류경남/ 011-715-7693/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변환웅/ 010-6657-9736/ byunwhan@gmail.com  
 부산/ 김홍련/ 016-571-5433/ rainhong1@hanmail.net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홍성태/ 011-530-5254/ hongst33@naver.com  
 대구/ 김정순/ 011-503-4302/ yubabba@hanmail.net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on@yahoo.co.kr  
 대전/ 김선제/ 042-581-3718, 017-425-2390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smgwangju@naver.com  
 광주/ 이민규/ 011-609-2243/ mglee2243@naver.com  
 광주/ 김경로/ 017-622-2374/ k2road@gmail.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공미희/ 016-475-5303/ kmeeh2000@yahoo.co.kr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신택/ 010-2507-3047/ kjb@korea.com  
 울산/ 센터/ 052-224-4111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센터/ 033-763-9358  
 원주/ 정광훈/ 019-369-2509/ f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4715-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v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틀/ Mr. Chinsukh Uuter/ 976-9910446/ khotolcenter@yahoo.com  
 코틀/ Ms. Tsen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oveocean.mn@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c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kcpcr@g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an/ 66-50-332136/ siriwanil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8499/ dradadiya@yahoo.com  
 두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빈/ 센터/ 43-664-9953748/ qyaustria@googlemail.com  
 빈/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c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quanyinsolia@gmail.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rn.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rn.cz  
 ★ 덴마크:  
 오덴세/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사르/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n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i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t@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뮌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aur@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kv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캄파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페포바스/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tancy\_l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수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sbohern.sk  
 ★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라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forevershinelove@gmail.com  
 라비보/ Mr. Rastislav Alt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lt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46843489/ jopreto@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영엘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l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암스워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l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ert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미드노스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리버스/ 바이런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s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 자비로운 생활의 메시지가 한창 꽃 피우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편집부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2년(2005년), 한 시대에 획을 긋는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비디오 ‘진정한 영웅’이 i-인디펜던트(전 PAX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매체를 통해 무상사는 사람들에게 채식 생활 방식이 시급히 필요함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개시한 일련의 ‘생명 존중’ 운동 중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초, 관음 가족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이집트 사막에서부터 몽골 대초원까지, 뉴욕 대도시에서 유럽의 시골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곳곳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삽화와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훌륭한 전단은 칭하이 무상사가 손수 디자인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식생활과 생활 양식을 바꾸면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막고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또한 이 신성한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자비로운 삶을 통해 보다 높은 의식 차원으로 성장해 우리 지구가 우주 진화의 행보를 따라잡을 수 있게 하자고 호소한다.

스승님께서 지난 몇 년간 동수들과 만나실 때면 당신의 사랑스런 애완동물과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다. 더 나아가 황금시대 4년(2007년) 초에는 품종도 다르고 개성도 제각각인 이 개들과 날개 달린 친구들과 함께한 생활의 단상과 서로 이심전심으로 소통한 귀중한 경험을 서술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두 권의 책을 직접 쓰셨다. 이 두 책의 중국어판이 포모사에서 출간되자마자 일대 열풍을 일으켜 킹스톤 서점에서 각 부문 베스트셀러 상위 10위에 올랐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영문판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 미분류 서적 부문에서 일주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으며 전세계로부터 주문이 쇄도해 출판계를 놀라게 했다.

이 두 권의 책은 스승님께서 직접 집필하시고 사진도 찍으셨으며 동물 친구들이 인류에게 전하려는 소중한 메시지를 시의 형식으로 표현해 독자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동물들의 감성 세계로 인도한다. 이 멋진 창조물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존재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는 인류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보답해 준다. 글귀마다 그들의 진실한 감정이 흘러 넘치며 칭하이 무상




사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들, 감정 표현이 풍부한 귀엽둥이 개들 간의 가슴 훈훈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금치 못하게 하며 반려 동물들의 단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준다.

이 밖에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스승님께서는 자비롭게도 Birdie Doggie와 관련한 간단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 판매하도록 출판사에 허락해 주셨다. 티셔츠·메모장·엽서를 비롯해 다용도 소핑백(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자 스승님께서는 특별히 이 친환경 소핑백을 장려하셨다)과 같은 각종 새로운 물품들이 곧 출시될 것이다. Birdie Doggie 물품을 날마다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동물 사랑·생명 존중’의 마음을 늘 일깨우고, 천국에서 온 귀여운 동물들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란다. 이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로 인해 신과 함께함을 느끼고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신의 무한한 은총이 이 Birdie Doggie 물품을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빛날 것이다.

Birdie Doggie 기념 티셔츠에는 스승님의 사랑스런 개들과 새들의 사랑스런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옷을 입는 즉시 높은 의식을 가진 이들 동물 친구들로부터 발산되는 기쁨과 빛나는 품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아울러 동물과 인류는 겉모습만 다를 뿐 다 같이 영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문구용품 시리즈 중 Doggie 메모장은 책상 위에 놓아두면 실용적이면서도 시선을 끌어서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름답고 우아한 새들 엽서는 생일 카드, 감사 카드,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카드와 다른 축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지고한 은총의 땅에서 온 천사들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실한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자.

스승님께서 친히 집필하신 두 권의 신간과 Birdie Doggie 선물용품은 온정과 사랑을 전하는 연말연시에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과 조화 속에 살 수 있는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Birdie Doggie 시리즈: 기념 티셔츠, 엽서, 문구용품, 소핑백, 빨간 봉투 등 각종 선물용품.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531** (어울락어 시 낭송 + 19개 언어 자막)

**DVD 532** (어울락어 시 낭송 + 17개 언어 자막)

### 전생의 발자취 (1)(2)

1996. 2. 23. 포모사 시후 센터

#### 주요 내용:

1996년 초봄, 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느 날 저녁 아름다운 스승님이 우아한 어울락 전통 의상 차림으로 나오셔서 플루트 선율에 맞춰 젊은 시절에 지으신 시를 유유히 낭송하셨다. 스승님의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이를 취하게 했다. 스승님은 대중들에게 각 시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다. 때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다가 다음 순간엔 재치가 넘치는 유머로 이어졌다. 스승과 제자 모두 음악과 영성의 고양이 어우러진 황홀하고 낭만적인 밤을 보냈다. 🌸



**DVD 775** (영어+20개 언어 자막)

### 한 사람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2006. 11. 26. 세계 평화를 위한 태국 특별 세미나

#### 주요 내용:

유사 이래 가장 특별한 명상 행사 중의 하나인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명상 대회'가 태국 파타야에서 열렸다. 전세계에서 수만 명의 신실한 명상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는 칭하이 무상사와 함께 깨달음과 기쁨으로 가득 찬 놀라운 시간을 보냈다. 이 질의응답 시간에 스승님은 존재의 다채로운 본질과 우리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다. 사랑과 유머가 넘치고 유익한 정보가 많은 이 강연에는 인생의 교훈과 마음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세속 생활과 그 너머의 삶에 관한 설명이 가득 담겨 있다. 칭하이 무상사와 함께한 이 특별한 시간을 감상하고 전례 없는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명상 대회'의 일부를 느껴 보자. 🌸



## DVD 720 (영어+24개 언어 자막)

### 출가 생활은 금욕주의에서 시작된다

2001. 6. 4.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 주요 내용:

자신의 수행 진보가 빠른지 느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스승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체험에 의한 판단보다 더 좋은 측정 기준을 알려 주신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나쁜 습관을 간파하게 된다. 이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자신의 진아를 계속 추구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깨달을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가자의 원래 목적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스승님의 관점에서 출가자의 삶은 어떠한가? 스승님은 젊은 시절 인도에서 구도 생활을 하시던 때부터 출가 후 뉴욕에서 거주하셨던 시절에 있었던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과 포모사에서 초창기 제자들과 같이 지낸 어려운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신다.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 CD CG 19 (중국어)

### 어째서 질병이 축복인가

1989. 1. 12.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 주요 내용:

왜 “번뇌가 깨달음이며 질병이 축복”인가?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 하면 아플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면목이 바로 드러나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과 연결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놓아 버릴 때, 우리는 도(道) 혹은 창조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오불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영향, 관음법문의 불가사의한 이로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 아울러 사람들이 왜 수십 년간 염불을 하고도 지혜를 찾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한편 내면의 스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신다. 🌸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천상의 상점(<http://www.theCelestialShop.com>)이나 에덴 통산(<http://www.EdenRules.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를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전화: (886) 2-87873335 / 팩스: (886) 2-87870873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694381 (요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강력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